



HCF MAGAZINE

2022 WINTER
VOL.57
WAY + MOVE

60 PEOPLE
화성인의 대답

38 FEATURE
전시장, 예술가, 작품,
관람객을 '초연결'하다
2022 기획 전시 '돌아보기'

14 INTERVIEW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모든 열정으로 부르는 훈성밴드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모블(MOBU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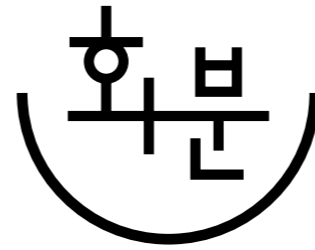
04 PIECE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곳
<화분>의 시작



WAY



MOVE



WAY + MOVE

화성시문화재단의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 <화분>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열 번의 사계절을 지나 창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 소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며 화성시가 가진 문화 경쟁력과 예술적 가치를 일깨워온 <화분>. 앞으로도 화성시의 문화를 알리는 공유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04 PIECE

문화를 담는 빛나는 그릇 《화분》의 시작



The 담다

예술을 담다

08 FOCUS

한 권에 문화-예술을 담다
매거진 《화분》의 10주년

14 INTERVIEW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모든 열정으로 부르는 혼성밴드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모불(MOBULL)'

20 COLUMN

스크린쿼터제도에서
장애인예술의 다음을 보다

24 TALK

영감을 주는 예술가들
쿠바를 사랑한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28 LIVE

창조적인 영감을 발현하고
사색의 깊이를 더하는 공간
김주은의 방



The 가다

공간을 가다

34 WALK

공간에 콘텐츠를 더하는 사람들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38 FEATURE

전시장, 예술가, 작품, 관람객을 '초연결'하다
2022 기획전시 돌아보기

42 TICKET

2022년 겨울,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공연

44 SKETCH

화성을 만드는 방법
사슴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46 CHECK

완벽한 연말연시를 위한
겨울 데이트 코스



The 하다

함께 하다

52 HELLO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놀고 함께 만드는 예술수업 <플레이엄>
예술로, 엠바디어스

56 LIST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북큐레이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책 한 권

60 PEOPLE

화성인의 대답
“올해의 마지막 날,
누구와 어디에서 보내고 싶나요?”

64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69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70 PLACE

배포처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화분》의 시작

예 술 에 관 다



FOCUS

한 권에 문화·예술을 담다
매거진 《화분》의 10주년

INTERVIEW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모든 열정으로 부르는 혼성밴드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모불(MOBULL)’

COLUMN

스크린쿼터제도에서
장애인예술의 다음을 보다

TALK

영감을 주는 예술가들
쿠바를 사랑한 작가, 에니스트 헤밍웨이

LIVE

창조적인 영감을 발현하고
사색의 깊이를 더하는 공간
김주은의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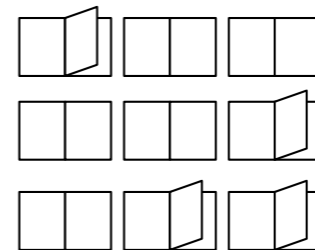
한 권에 문화·예술을 담다 매거진 《화분》의 10주년

화성시문화재단이 발행하는 매거진 《화분》이 열 살 생일을 맞이했다.
《화분》은 화성시의 문화·예술 소식을 알 빠르게, 또 심도 있게 소개해 온 재단 소식지다.
10년 동안 시민과 함께하며 화성시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매거진으로 자리 잡았다.
매거진 《화분》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난 1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자 한다.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문화를 담는 빛나는 그릇 《화분》의 시작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의 역사·예술·스포츠 등 복합 문화 정보를 제공하고, 화성시의 주요 문화관광 자원을 소개하고자 소식지를 기획했다. 그렇게 2012년, '문화를 담는 빛나는 그릇'이라는 의미를 담은 제호 '화분(華盆)'이 탄생했다. 창간호는 가로 22cm, 세로 27cm의 꽤 큼지막한 사이즈에 40쪽 구성으로 시작했다. 격월간으로 출수달마다 발행을 이어오다 2015년 18호부터 계간으로, 2017년 26호부터 다시 격월간으로 발행주기를 변경했다. 2021년 50호부터 계간지로 변모해 계절의 감성을 살린 주제와 디자인으로 제작하고 있다. 《화분》은 구성 측면에서 오랫동안 유지해온 특색이 하나 있다. 각각의 코너를 아우르는 대분류의 고정 제목 'The 담다(예술을 담다)', 'The 가다(공간을 가다)', 'The 하다(함께 하다)'이다. 창간호에서 '…하다', '…보다', '…가다', '…담다'로 시작해, 2호부터는 'The …하다'로 표현을 바꿔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10주년



발행 부수

175,000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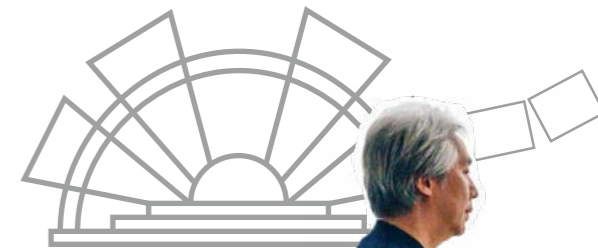


독자엽서 수신 건 수
(2018년부터)

190건

책자의 모든 페이지를 세로로
이어붙이면, 화성에서
제일 큰 공연장 화성아트홀의 무대

7바퀴 반



《화분》이 만난 사람들
(인터뷰 참여자 수)

289명

발행 호수

57호

지난 10년간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화분》도 변화해왔다. 환경을 생각해 재생원료를 배합해 만든 친환경 용지인 그린라이트지를 2020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 책자,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이나 태블릿 기기로도 쉽게 《화분》을 접할 수 있도록 연동형 웹진 사이트를 새롭게 구축했다. 그간 3천~4천 부의 책자를 출간해왔고, 발행량을 작년부터 2천5백 부로 줄이고 블로그나 SNS를 통한 연재를 강화했다. 온라인 매거진의 강세가 계속되지만, 여전히 종이책의 감성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 종이책을 발간하고 있다. 오랫동안 《화분》을 사랑해온 많은 애독자들은 "꼭 오프라인 잡지로 남아주세요"라며 독자 후기를 남기고 있다.

표지와 함께 보는
《화분》



창간호 / 2호

《화분》의 창간호(1호)부터 17호까지 제호를 캘리그래피로 표현해 예술적인 느낌이 물씬 풍긴다. 해당 호 메인 인터뷰에 참여한 시각예술 분야 작가의 작품이 주로 표지를 장식했다.

18호 / 20호

2015년에 발행된 18호부터는 주요 기사와 관련된 풍경, 작품과 함께 제호를 더 친근감 있게 디자인했다. 글자 '화'는 검은색으로, '분'에는 매호 다른 산뜻한 색상을 입혔다. 책자는 세로로 1cm 길어지고, 페이지 수가 기존 40쪽에서 64쪽으로 늘어나 매거진에 목직함을 더했다.



22호 / 25호

22호부터는 제호를 상단에 배치하고, 주요 기사와 연결되면서도 계절감이 드러나는 표지 사진을 크게 배치해 시원함이 느껴진다. 책등과 표지에 'SPRING', 'SUMMER' 등 계절 표기로 발행주기를 나타냈다.

27호 / 29호 / 31호

26호부터는 계간에서 격월간으로 발행 주기가 변경되며, 쪽수도 줄어 한결 가벼워졌다. 화성시문화재단의 생생한 사업 현장 사진과 해당 호에서 다룬 주요 기사가 표지에 드러나도록 구성했다. 특히 2018년에 발간된 31호는 화성시문화재단이 10주년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38호 / 41호 / 42호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는 《화분》의 의미처럼 등근 받침 모양이 더해진 제호 디자인이 38호부터 사용됐다. 또 38호부터 43호까지는 인터뷰에 참여한 세계적 예술가들이 표지를 장식했다. 커버스토리를 만날 수 있는 앞표지 접지를 활용한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45호 / 50호

45호부터는 표지에서 발행 연월과 주제를 심플하게 표기하고 화성시문화재단의 매거진임을 알 수 있도록 했다. 독자가 표지 사진으로 화성의 공간, 화성 예술가의 작품, 화성시문화재단 기획 전시를 만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54호 / 5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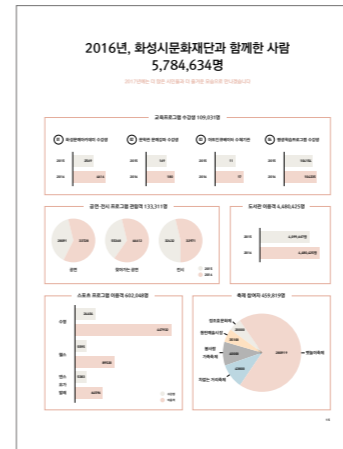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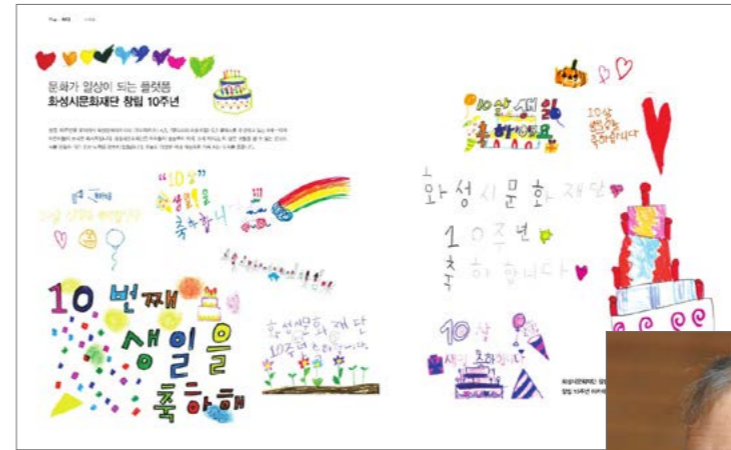
54호부터는 발간 후 처음으로 가로형 이미지를 활용했다. 큼지막한 주제에 배치, 배경 색상 추가로 색다른 변화를 주었다. 달라진 디자인 덕분에 화성시문화재단의 활기가 느껴진다.

《화분》으로 보는
화성시문화재단 소식

초창기 《화분》을 살펴보면 화성시문화재단의 최초와 성장 과정을 만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2008년 설립 이후 병역적 인근의 복합문화센터인 유엔아이센터를 개관·운영하고, 다음 해에는 센터 내 화성시 최초의 전문 공연장인 화성아트홀을 개관하고 기획 공연을 시작했다. 이후 동탄복합문화센터 개관에 이어 2011년 4월, 반석아트홀이 개관했다. 2012년 4월에 탄생한 《화분》 창간호에 반석아트홀의 개관 1주년 소식과 함께 기념 공연 안내가 담겨있다. 2014년 1월에 발행된 11월 호에서는 화성시문화재단 5주년 특별 기획기사도 만나 볼 수 있다. 당시 창립 5주년 백서 편찬을 통해 재단의 전반적인 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출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재단은 지역 내 문화자원의 현황 연구 분석과 이를 활용한 문화 정책을 모색해왔으며, 화성시의 문화예술 잠재력을 발굴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써온 그간의 성과와 의미를 조명했다.



2016년 겨울호(25호)에서는 재단과 한 가족이었던 당시 여성비전센터팀, 청소년수련관팀, 스포츠운영팀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내용을 담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새로운 발걸음에 응원을 보냅니다'라는 기사가 눈에 띈다. 이들이 그간 재단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왔는지도 알 수 있다. 또한 화성시미디어센터가 화성시민의 미디어 향유권을 위해 오랜 시간 준비한 끝에 개관한다는 소식과 함께 알차게 구성된 프로그램, 센터 시설 안내도 볼 수 있다.



2017년 4월, 26호는 아트홀 특집으로 구성됐다. 화성시 서부권 최초 전문공연장인 누리아트홀이 개관한다는 반가운 소식과 함께 재단의 기획공연, 무대 뒤 숨 가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무대·조명·음향감독)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또한 ‘2016년, 화성시문화재단과 함께한 사람 5,784,634명’이라는 페이지를 통해 지난 1년 간 교육 수강생, 공연·전시 프로그램 관람객, 도서관·스포츠 시설 이용객, 축제 참여자 수를 공개하기도 했다. 28호에서는 일상 속 문화를 만들어가는 플랫폼, 화성시미디어센터와 화성시생활문화센터가 개관했음을 알렸고, 각종 세부 프로그램도 엿볼 수 있다.

2018년, 36호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화성시문화재단을 기념하는 특집호로 꾸며졌다. 36호에서는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예술가 및 단체 지원사업, 기획공연, 생활예술, 예술교육 등 재단 핵심 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창립 10주년을 맞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페이지가 돋보인다.

화성시를 찾은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인터뷰도 빼놓을 수 없다. 피아니스트 김대진, 안무가 안은미, 건축·미술계의 거장 배리 버그돌(Barry Bergdoll), 사진작가 겸 설치미술가 천경우, 오보이스트 함경과 피아니스트 손열음, 소리꾼 이희문 등이 참여해 《화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놓으며, 재단이 진행하는 문화행사에 관심을 이끌었다.

지난 10년간 《화분》은 ‘문화를 담은 그릇’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정보를 다뤘다.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연·전시·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화성시의 가볼만한 곳, 놀이 등을 소개하며 문화·예술 트렌드를 다뤘다.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매거진 《화분》의 활약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모두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모든 열정으로 부르는 혼성밴드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우승팀 '모불(MOBULL)'

지난 10월 15일 화성시 동탄센트럴파크 공원에서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결선 경연이 펼쳐졌다.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는 시민이 직접 뽑은 신인 뮤지션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어 이번에 5회째를 맞은 프로젝트로, 상금과 함께 뮤직비디오 제작, 음원 제작 등 혜택을 제공해왔다. 올해의 경우 전국에서 110여 개의 단체가 지원해 10개 단체가 본선에 진출했고 이날 최종 5개 단체가 결선 경연에서 혼성밴드 '모불(MOBULL)'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뛰어난 음악성과 독특한 개성으로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자아냈던 이들의 우승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다.

글 이종철 사진 최항영

먼저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서 우승한 것을 축하드리고 만나 뵙게 돼 반가움을 전합니다.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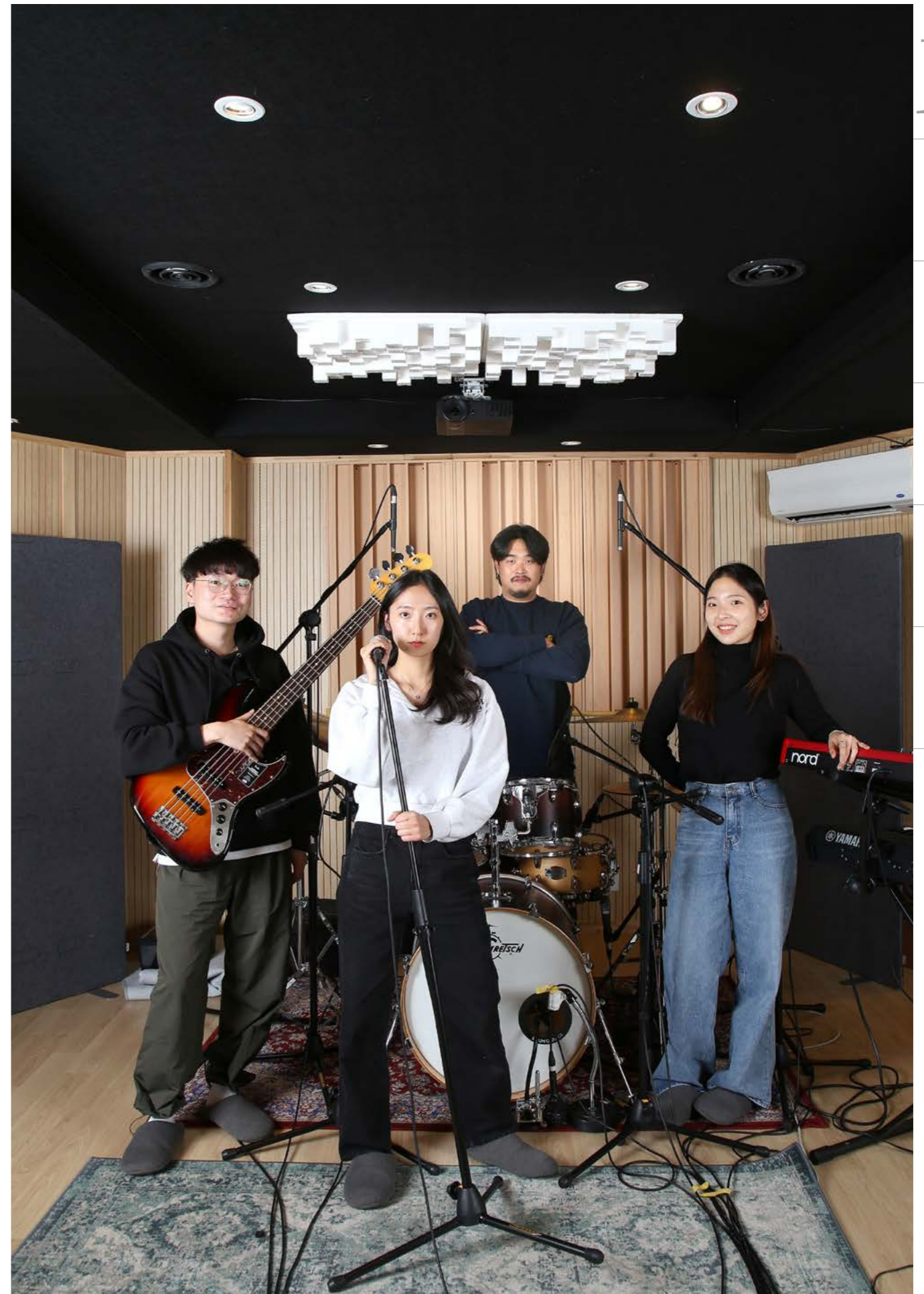
신민철(이하 신)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대회를 준비하면서 중간중간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우승을 하게 돼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보람 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동탄센트럴파크 공원을 찾아 주신 관객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고생에 대해 보상받는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았습니다.

<화분> 독자들을 위해 '모불(MOBULL)'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 '모불'은 '모두가 부(불)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밴드'가 되자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멤버는 호원대와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졸업생들로 결성됐는데, 음악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 거죠. 한 사람씩 소개하자면 이하람(보컬)-안소현(건반)-신민철(드럼)-임동현(베이스) 등 네 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 대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하람(이하 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무대가 어디 없을까?' 찾던 중에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를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는 대회나 공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면 바로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서로 논의하면서 지원해왔어요.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서는 자작곡에 커버곡까지 준비해야 했는데, 자작곡보다 오히려 커버곡을 선정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작곡은 저희가 가진 곡 중에서 선택하거나 한 곡을 더 만들면 되는데, 커버곡은 좋은 기성곡이 워낙 많은 데다 선정한 후 저희에게 잘 어울리게 편곡까지 해야 했으니까요(웃음).





- 
 <모불(MOBULL)>
- 
 <MadRex>
- 
 <스칼렛킴 밴드>
- 
 <rooftop patio>
- 
 <오드(ode)>

 치열한 경연 속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준 다섯 밴드들의 결선 현장을 확인해보자.

안소현(이하 안) 저희 팀이 널리 알려지고, 언젠가 저희 곡을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걸 상상해왔는데, 그게 실현될 수 있고 그 목표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공고를 찾게 된 것은 천운이었고, 모두가 보자마자 바로 지원하자고 결정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어요.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결선을 준비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했는데, 결선에 올라가는 팀을 발표하는 게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곡을 만들고 커버곡을 준비해도 올라가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대회에 맞게 작업을 해야 하다 보니 생각이 많았죠. 결선 때 부른 커버곡도 이를 전에 바뀌어서 가사도 급히 외워야 했습니다.

임동현(이하 임) 자작곡과 기성곡, 두 곡 모두 편곡 측면에서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고, 좀 더 쉬우면서도 트렌디하게 작업하는 과정이 가장 쉽지 않았습니다. 또, 대회의 조건에 맞는 곡이 적었기 때문에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짧은 시간 안에 곡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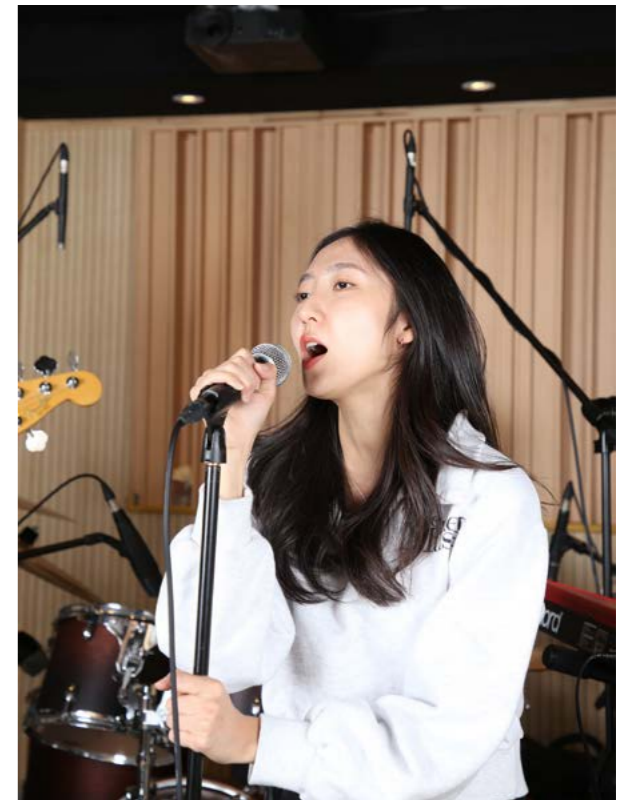
신 저는 결선 무대를 준비하면서 곡의 방향성, 특히 편곡의 방향성 때문에 고민했어요. 멤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준 덕분에 힘든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2022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서 경연을 펼쳤을 때로 가보면, 최종 결선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승을 예감한 순간이 있었나요?

임 수상자 발표가 진행되는 와중에 마지막 3팀까지 불리지 않았을 때 '이러면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었어요(웃음). 진짜로 우승이라는 것에 놀라움이 컸고 다음 날까지도 좋은 기분이 이어졌어요.

안 시상하기 직전에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입상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긴 했어요. 하지만 우승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죠. 덕분에 기쁨이 더욱 배가 됐지요.

이 우승팀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호명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무대에 섰을 때는 그동안 대회를 준비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감과 동시에 후련하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이 생각하는 모불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인가요?

이 즐기면서 무대하는 모습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만 해도 짧은 시간에 곡을 쓰고, 커버곡을 급히 바꾸며 준비 기간이 짧았어도 무대에 올랐을 때는 멤버들 모두 즐겨보자는 마음이 크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긴장도 덜 됐고요.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 있는 노래와 친근한 저희의 모습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작업하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 꾸준히 함께하면서 쌓아온 시간이 모이고 모여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야말로 모불의 정체성이죠.

우승 후에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우승 상금은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임 예정된 팀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상금은 개인적으로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썼습니다. 안 뒤에 이어질 활동을 위해 컨디션 조절에 힘썼죠. 상금은 더 멋진 활동을 위해 저축했습니다.

이 저는 대회 이후에 여러 촬영에 필요한 의상과 부가적인 소품 등을 구입하는 데에 썼습니다.

모불은 어떤 밴드를 꿈꾸고 있는지, 《화분》 독자들과 화성시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모불이라는 팀이름처럼 모두가 부를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밴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희의 음악을 듣는 그때까지 더 멋진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래에는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에 오셨던 화성시민 분들이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불(MOBULL)
 호원대와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졸업생들로 결성된 4인조 밴드로, 보컬 이하람, 건반 안소현, 드럼 신민철, 베이스 임동현으로 이뤄져 있다. 2021년 에버모어뮤직 'MORE' 프로젝트를 통해 싱글 <Farewell>을 발표했다.
 유튜브브 <https://www.youtube.com/@bandmobull46>

스크린쿼터제도에서 장애예술의 다음을 보다

지난 9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장애예술인 자체의 힘을 길러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글 강국현(사단법인 <오늘은> 사무국장)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스크린쿼터제

지난 9월 7일 장애예술인지원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9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2022~2026)'을 발표했다. 주요한 내용을 보면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지원정책 기반 조성', '예술 활동 지원 전문인력 교육 지원' 등 주로 장애예술인의 작품 활동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나 기회 제공 측면이 강하다. 이런 지원 의지의 하나로 청와대 첫 전시의 기회 또한 장애예술인에게 주어졌다.

이와 같은 소식을 접했을 때 필자의 머릿속에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을 휩쓸었던 한국 영화 스크린쿼터제 이슈가 오버랩됐다. 논란 당시에는 스크린쿼터제도가 있어야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작환경의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영화를 양산하고 한국 영화의 체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나쁜 제도라고 주장하는 이가 공존했다. 돌아보면 한국 영화가 지금 같이 글로벌한 위상을 가지기 전 할리우드 영화가 넘쳐나던 그 시기에 그나마 한국 영화계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서 지금 좋은 한국 영화를 만들어 내는 것에 토대가 됐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것이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관련한 제도와 법률이 영화 상영 비율을 규제하는 스크린쿼터제와 직접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을 통해 장애예술인들이 어떻게 일련의 법과 제도를 활용해 장애예술인 자체의 힘을 길러나갈지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예술인의 경쟁력을 키울 때

필자가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오늘은 설립 이후 수년간 장애 청년과 함께 문화예술작품 활동은 물론 장애청년 대상의 각종 문화예술 향유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문화예술 재능을 가진 청년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노력도 했고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장애'라는 타이틀을 빼고 나면 예술 자체의 경쟁력이 줄어든다는 점이었다. 물론 실력 있는 장애예술인들은 비장애예술인보다 훨씬 좋은 경쟁력을 가지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아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이 그린 그림, 장애인이 만든 물품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대중과 만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런 작품을 만났을 때 장애인으로서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을 어려움이 스쳐 가고 '정말 대단하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런데 문화예술이 정말 한 개인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어느 전시장에서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장애를 가졌는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에 관한 생각은 내 머릿속에 생기지 않는다. 그 작품이 주는 느낌만이 오롯이 내 속에 남는다.

장애예술인이 지원제도와 계획에 따라 작품 활동을 했다고 해도 그 작품의 수준이 비장애인의 그것과 비교 받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된다면, 어느 순간 굳이 장애인 전시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고도 당당하게 대중 속에 존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찾는 예술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사회 속에 녹아들 것이며 그 순간 장애의 타이틀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고 당당한 예술인으로 '자립'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지금의 한국 영화를 떠올려보자. 이제 누가 좋은 '한국 영화' 보고 왔다는 사람이 있나? 좋은 '영화'를 보고 왔다고 말할 뿐. 우리의 인식 속에 이제 내가 즐기는 영화를 구분하는 요소에 '한국'은 없다.



장애예술인의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기획자들의 역할

다만 온전히 자립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지금의 문제가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탓은 아니다.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회와 작품 활동에 몇 배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회가 법과 제도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작품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겠는가. 아직 부족한 것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많은 분야이지만, 언젠가 완벽해질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기보다 마치 한국 영화의 스크린쿼터제가 그랬던 것처럼 제도가 벌여준 시간과 기회를 이용해 장애예술인 당사자가 더 좋은 예술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기획자들이 활약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필자와 같은 문화예술기획자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가장 기초적이고 폭넓게 해야 할 노력은 장애가 있는 이들이 누구나 예술의 매력을 느끼고 그 창작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예술 경험의 배리어(barrier)를 없애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다. 타고날 때부터 붓과 오션지를 물고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 성장 과정에서 문화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관심이 생기고 그에 따른 재능을 발견하고 그에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을 때 비로소 좋은 문화예술 창작인이 길러질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창작뿐 아니라 단순 향유 측면에서도 장애인이 공평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물론 수년 전부터 문화예술계에서 배리어프리 콘텐츠와 인프라 형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 우리 문화기획자들은 내가 만드는 하나의 배리어프리 문화예술행사와 콘텐츠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가치 있는 일임을 인지하고 그것이 훌륭한 장애예술인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20여 년 전 스크린쿼터제가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 대중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20년 후에 아카데미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르지 않나? 필자부터 지금 하는 시각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오디아’ 채널 속 배리어프리 콘텐츠를 잘 만들고 운영하는 것으로 이것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노력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장애예술인만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보다 장애예술인들이 사회 속에 특별히 존재하지 않고 ‘그냥’ 존재하게끔 기획자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 한마디로 장애예술인-비장애예술인 구분이 없는 소셜믹스를 통해 장애인예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면 어떨까 싶고 그것은 장애예술인 당사자가 아닌 문화예술 기획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공동체와 차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데 꼭 장애인 예술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소셜믹스는 그에 대한 좋은 해결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애는 누군가의 인위적인 잘못이 아닌데 굳이 인위적으로 구분 짓는 형태로 그들의 차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을까? 문화예술이야말로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 평등하게 작품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도구인데 말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이 모든 사람의 디자인으로 불리며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같은 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로의 차이를 지워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장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지원법과 계획을 발판 삼아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면 서서히 예술의 영역에서 장애 여부가 구분되는 경우가 적어지지 않을까?

장애예술인의 더 멋진 미래를 위해

이 글을 통해 짧게나마 장애예술인지원법 개정안 통과 및 지원계획수립 시점에 문화예술기획자가 장애예술인 성장을 위해 생각해보아야 할 지점에 대해 한국 영화 성장의 중요한 버팀목이 된 스크린쿼터제를 빗대어 살펴보았다. 조금은 냉정하리만큼 지원정책 이후의 장애예술인 당사자의 자립과 문화예술기획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지만, 주위의 장애예술인 당사자를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 정말 진심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임하고 있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또한 차이가 차별을 만들지 않게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법과 지원계획, 열정 넘치는 장애예술인 당사자, 이들을 돕는 문화예술기획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한다면 사회 속에서 멋진 장애예술인을 더 자주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국현

문화예술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비영리사단법인 <오늘은> 사무국장. 장애, 고령, 자립 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기회와 경험에서 소외된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영감을 주는 예술가들 쿠바를 사랑한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낡은 벽 옆에 정지한 울트라 클래식 코치

쿠바는 신비로운 힘을 가졌다. 낯선 이에게 다정히 손 내밀게 하고, 말없이 따스한 눈빛을 보내는 용기를 갖게 한다. 세상이 나와 가까이 있음을 느끼게 한 쿠바. 그곳에서 만난 헤밍웨이의 매력은 여전히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글 정여울



아바나의 골목길을 걷는 소녀

체 게바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쿠바를 직접 가지 않고도 쿠바를 떠오르게 하는 뜨거운 상징들은 많다. 나는 쿠바 아바나 음악 그룹의 앨범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 뿐 아니라 쿠바의 다양한 음악을 틀날 때마다 찾아듣곤 했다. 《체 게바라 평전》은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었고,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여러 번 관람했으며, 헤밍웨이의 작품들과 카스트로 평전 등도 집에 잔뜩 쌓여 있다.

쿠바는 내 오랜 꿈이었다. 그런데도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내며 쿠바행을 미뤘다. 너무 멀어서, 시간이 없어서, 스페인어를 몰라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제일 좋은 것을 맨 나중으로 미뤘다. 그러다 마흔의 문

턱에 덜컥 다가서고 말았다. 좋아하는 것을 자주 미루기만 하는 내가 밉고, 싫고, 원망스러운 때가 오고만 것이다. 비로소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만 쿠바로 떠나자고, 아바나의 뒷골목과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태어난 장소 코히마르와 체 게바라의 혁명의 꿈을 만나러 가자고. 그렇게 결심하자, 미친 듯이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출발하기도 전에 꿈이 이뤄진 느낌이었다.

아바나의 낡음, 아바나의 아름다움

쿠바 아바나는 모든 것이 낡았다. 거리의 자동차, 벽돌, 보도블록, 간판들 모두 하나같이 낡았다. 특히 아바나의 벽들은 대부분 오래되어, 굵힘과 부서짐의 흔적이 선연하다. 그런데 촌스럽지도, 궁벽스럽지도 않다. 아바나 사람들이 이 오래된 벽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바나에서는 세월의 흉터조차 눈부시다. 쿠바 사람들은 새것에 집착하거나 신제품에 열광할 기회가 차단되어 있기에 '오래된 것들과 새롭게 함께 하는 법'을 찾은 것 같다. 그래서일까. 아바나에서는 새로운 것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유행에 신속하게 따라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물건과 공간에 대한 깊은 오래가는 애착이 느껴진다. 오래된 벽은 오래된 그대로, 낡은 자동차는 낡은 그대로, 서로의 찬란한 파트너가 되어준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체 게바라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 세 사람의 얼굴은 쿠바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다. 이들은 엽서로, 티셔츠로, 포스터로, 열쇠고리와 냉장고 자석으로, 심지어 건물의 로고로 생생히 살아있다. 아바나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마음속에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별'의 아스라한 빛을 끝까지 믿고 따라간 사람들이 아닐까. 체 게바라에겐 혁명이, 카스트로에겐 조국, 헤밍웨이에겐 문학이 보이지 않는 마음속 별빛이 아니었을까.

다음 날 나는 헤밍웨이가 아바나에서 즐겨 마신 모히토로 유명한 카페 '라 보테가 데 벨 메디오'로 갔다. 카페 앞에서 사람들은 열심히 셔터를 눌러댔다. 나도 덩달아 신들린 듯 셔터를 눌러대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마음을 빼앗겼다. 누가 이렇게 노래를 구슬프고 가녀리게 부르는가 했더니, 거리의 버스커였다. 그의 영롱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에게 인사하고 지폐를 전해주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가 앞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주었으나 그는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청중과 교감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다만 '눈빛'으로 청중과 교감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자 나는 왠지 부끄러워졌다. '내가 감동했음을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불현듯 그의 노래를 더 오래 듣고 싶어졌다. 그와 눈빛으로 교감할 수는 없었지만 노래를 그냥 '걸어가며', '스쳐가며' 듣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듣고 있다는 것을, 그도 마음의 눈으로, 느껴주기를 바랐다. 목소리가 너무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도 깨닫기를 바라며 나는 그 자리에 오래오래 서 있었다.

헤밍웨이를 만난 곳, 코히마르

아바나 여행을 마친 후 코히마르로 향했다. 헤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구상한 곳, 소설 속 바다 사나이, 산티아고 노인의 모델이 된 이 곳을 만난 곳. 그곳이 바로 쿠바의 코히마르다. 코히마르 사람들은 쿠바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를 비롯해 명작을 쏟아내던 헤밍웨이가 쿠바를 떠나 미국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고기잡이배에서 쓰던 닳은 돛으로 헤밍웨이의 동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가난한 어부들이 자신의 소중한 닳은 십시일만 기꺼이 녹여 만든 헤밍웨이의 동상은 코히마르를 지켜주는 장승처럼 굳건히 서서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다. 끝없이 인생의 절벽 아래로 떠밀리면서도 "실패할 수는 있어도, 결코 무릎 꿇을 수는 없다"라고 믿었던 산티아고 노인의 속삭임이 아직 귓가에 쟁쟁하다.

헤밍웨이의 집은 코히마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명소다. 헤밍웨이의 서재를 보려면 길게 늘어선 줄을 따라 한참을 기다려야 할 정도다. 기다림 끝에 보게 된 헤밍웨이의 방, 그곳은 전형적인 마초적 남성

쿠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체 게바라의 사진



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준다. 헤밍웨이의 방에는 여기저기 동물물 박제해 놓은 장식품, 투우를 묘사한 사진과 그림, 사냥용 총기와 신발, 옷들이 보인다. 반면에 그가 지닌 뜻밖의 보드랍고 연약한 측면들도 있다. 바로 헤밍웨이가 키우던 강아지들의 이름을 커다랗게 새겨서 무덤을 만들어놓은 뒤들의 모습이 그랬다. 헤밍웨이가 즐겨 탔던 커다란 보트, 그가 《노인과 바다》를 구상하면서 머나먼 바다를 하염없이 내다보며 썼던 망원경이 있는 방도 있다. 《노인과 바다》에서처럼 청새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내는 집요하고도 남성적인 집착이 헤밍웨이의 아니무스(무의식의 남성성)라면, 《깨끗하고 밝은 곳》에서 흑시나 카페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봐 카페 문을 쉽사리 닫지 못하는 웨이터의 어리고도 촉촉한 마음이 헤밍웨이의 아니마(무의식의 여성성)가 아닐까. 인간에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안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헤밍웨이를 통해 느끼게 된다. 헤밍웨이의 단편 《깨끗하고 밝은 곳》(김옥동 옮김, 민음사, 2016)에서 나이 든 웨이터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늦게까지 카페에 남고 싶어,” “잠들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밤에 불빛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아야,” “젊음도 자신감도 아주 아름다운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만의 문제는 아니야. 매일 밤 가게를 닫을 때마다 어쩐지 망설이게 돼. 카페가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말이지.”



아바나의 말레콘에서 푸르른 바다와 하늘을 감상하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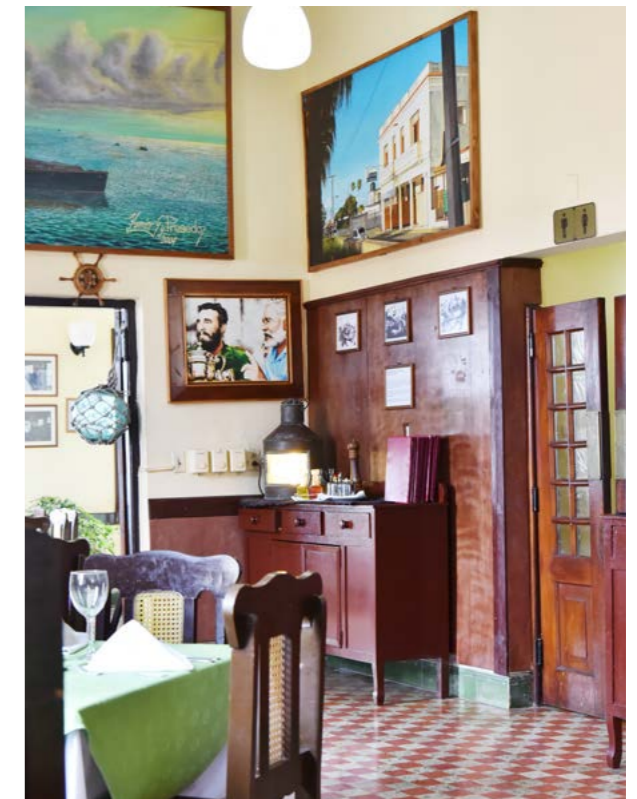


아바나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의 공연 모습

정여울

문학·심리·여행이 어우러진 글을 쓰는 작가이자 칼럼리스트. 저서로는 《끝까지 쓰는 용기》 《그림자 여행》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 《늘 괜찮다 말하는 당신에게》 등이 있다.

헤밍웨이가 살았던 코히마르의 집 내부 모습



한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런 교묘한 양면성이다. 하나의 잣대만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미묘한 어긋남, 극단적인 두 본성의 찌릿한 공존 같은 것들. 그것이 헤밍웨이의 매력이다.

눈부시게 따스한 쿠바의 기억

보통 여행지는 공간의 아름다움이 오래 기억에 남는데, 쿠바는 공간보다 사람이 더 기억에 남았다. 집에 가기 싫어서 하루 종일 길가를 서성이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참 동안 뛰놀고, 만삭의 임신부가 스카프를 팔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동네 이웃을 대하듯 “아기는 언제 나오냐, 이름은 뭐냐”라고 묻게 만든 것도 쿠바의 신비로운 힘이였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른다. 내가 ‘친해지고 싶다’는 표정을 먼저 보내면, 경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먼저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들의 투명한 눈빛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쿠바에서 느꼈다.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와 가까이 있음을. 쿠바에서는 세상이 나에게 내민 손짓이 좋았다. 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따스한 미소가 좋았다. 기억 속의 체 게바라만큼이나, 책 속의 헤밍웨이만큼이나, 내 꿈과 그곳의 현실을 조금씩 일치시키는 여행의 걸음걸음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창조적인 영감을 발현하고 사색의 깊이를 더하는 공간 김주은의 방

김주은 작가는 삶 속에서 얻은 영감을 구체화하고 실제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것을 특정한 기법과 도구로 한정하지 않는다. 때로는 오브제로, 때로는 조각과 회화, 조각으로 표현하며 팔색조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해낸다. 그의 작업 공간도 그렇듯 풍성한 색감 이면에 다면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다. 생동하는 개성과 내밀한 사색이 공존하는 공간, 바로 김주은의 작업실이다.

글 이종철 사진 남윤중

당신은 누구인가요?

설치미술과 조각, 회화 등 두루 작품활동을 하는 김주은입니다. 저는 시각미술에서 중요한 '이미지'를 가지고 실험하기를 좋아해요. 단지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자체라기보다는 실재와 인상(印象), 개념과 오브제와 같은 미술철학을 저만의 것으로 해석하고 시각화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죠. 관객과의 소통을 통해 그 철학들을 증명하고, 실제 작업으로 풀어 보았을 때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을 즐깁니다. 주로 입체적인 양감을 가진 오브제를 이용한 설치작품을 작업하고 있어요. 또 전체 작품을 풀어나가기 위해 드로잉, 판화, 회화, 도자기 등을 부수적인 재료로 사용합니다. 제가 오브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일상에서 만나기 쉬운 물건이라는 것과 둘째, 같은 물체이지만 작가의 상상력을 만나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오브제만의 매력을 느껴 많은 작업에 두루 사용하고 있답니다.

제가 화성시민을 비롯한 관객 분들과 만나게 된 계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2022년 신진예술가 자립지원 공모에 선정된 덕분이었어요. SNS 알림 설정에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을 등록해 두었는데, 2022 신진예술가 자립지원 공모가 떠서 지원한 것이 덜컥 선정된 것이죠. 이전에는 예술그룹 '용도변경展(서울)', 프로젝트 그룹 '아트젤리(화성)'로 활동하며 혼자 전시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한 명의 작가로 당당히 자립하게 됐죠. 선정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가족들의 인식입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의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재료·공간대여·홍보 등 제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즉, 취미로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받게 된 거죠. 저 스스로도 예술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게 된 것도 달라진 것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월에 선보인 <아우라: 가깝고도 먼 것> 전시 이후에는 작품에 대해 감명 깊었다는 관객 평도 받고, 처음으로 작품 판매 문의도 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저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문화에서 태어나고 자라왔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기독교 교리와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제 세계관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예술관에 있어서는 독일의 예술가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와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미셸 푸코의 책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는 시각예술을 하는 제게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내 작품을 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에 대한 고찰을 하게 했고, 작가로서 이미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요셉 보이스의 "모든 사람은 예술가다"라는 말은 예술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작가의 삶 자체가 예술작품임을 인식하는 그의 생각을 잘 드러냅니다. 요셉 보이스의 작품 <7000그루의 떡갈나무>에서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저는 '시각예술은 시각적으로 시야점을 던져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비로소 저는 시각적으로 연연하기보다는 예술가로서 삶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본 것과 보여주고 싶은 것을 진실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됐죠.

작품 작업을 살펴보면, 제 생각이 작품에 잘 담아내는 것을 우선하고 세부적인 부분은 잘 챙겼는지, 관객이 작품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를 고려합니다. 관객이 제 작품을 보며 '누구든 내면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고,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삶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이미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발현되는 모습은 모두 다르고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작업실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화성과 연을 맺게 된 것은 2018년의 일로, 서울에서 화성으로 이사를 온 이후 작업공간과 주거공간을 함께 사용하며 이곳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른 아침 시간에 작업을 하는데, 엄마로써 또 아내로써의 역할을 하기 전, '김주은'이라는 사람에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고,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면서 작가로써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기 때문이에요. 제 작업실의 특징은 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공간과 그늘이 지는 공간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올 때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저는, 밝은 작품의 경우 빛이 들어오는 핑크색 책상에서 대부분 작업합니다. 그러나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싶거나, 관념적인 작품을 할 때는 그늘이 지는 나무 책상에서 작업하고 있죠. 한 사람 안에서라도 각기 다른 내면이 있듯이 작가로써의 저도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작업 스타일에 국한하지 않고 그날그날의 감정, 생각 중에 제가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데에 가장 맞는 책상과 공간을 이용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독립된 공간을 가지게 됐지만, 서울에서 살던 시절 저의 작품 환경은 불안정한 부분이 많았어요. 대학을 막 졸업한 작가에게 전시 공간을 빌려주는 곳이 없어서 친구들과 함께 '용도변경전'이라는 그룹을 만들고 홍대입구와 한남동 등의 주차장 공간을 2시간씩 빌려 게릴라성 작품을 전시하고 철수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전시를 지속해서 하고 싶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친구들과 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현실적인 삶을 살게 됐죠. 그런데 화성에 와보니 현실의 삶을 살면서도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 놀라웠어요. 생활예술도 예술의 한 범위로 인정받으며 여러 지역주민들과 향유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돕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창조본능을 깨울 수 있는 질 좋은 여건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화성시문화재단이 하고 있었죠. 저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보고, '지역사회의 예술가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공간에 사는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가짐도 바꿀 수 있게 한다는 점이 참 신기했어요.





공 간 을 가 다

WALK

공간에 콘텐츠를 더하는 사람들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FEATURE

전시장, 예술가, 작품, 관람객을 '초연결'하다
2022 기획전시 돌아보기

TICKET

2022년 겨울,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공연

SKETCH

화성을 만드는 방법
사슴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CHECK

완벽한 연말연시를 위한
겨울 데이트 코스

가다

공간에 콘텐츠를 더하는 사람들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우리 동네에서 흥미로운 놀이를 찾고 있다면 기대하라! 화성시민과 생활예술인의 만남의 장소가 있으니 말이다. 우리 동네에 특별한 콘텐츠를 더해 화성의 특색을 입히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화성시는 다양한 문화욕구가 존재하는 젊은 도시다. 그런 만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화성시 문화재단은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지난 8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선정 공모사업인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를 진행했다.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이란 지역 생활권 내에 위치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해 설립된 장소를 말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화성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이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진행할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총 5곳을 선정했고, 9월~11월까지 각 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 사업은 2021년도에 진행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연구」의 일환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2023년에는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어떤 공간을 운영하고 있나요?
- 운영 공간의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 이번 공모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나요?
-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나요?
- 우리 지역에 어떤 문화공간이 더 필요할까요?

올해 '화성, 문화로(路) 공간을 잇다' 공모사업에는 능동에 위치한 갤러리 문화아지트, 봉담읍에 위치한 나마네, 비봉면의 카페오카페, 안성동의 파미라운지와 화인규방이 선정됐다. 공간 운영자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 공간 운영자를 만나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 들어봤다.

갤러리문화아지트

A 화성시 남여울로1길 23 1층 101호
Q 031-8050-3201, 이메일 pop30961245@nate.com

- 캘리그라피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센터에 출강하는데, 짧은 수업 과정을 아쉬워하는 수강생들이 많았죠. 개인 작업실에서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지금의 공간을 열게 됐어요.
- 능동은 조용한 동네예요. 근처에 목공, 유화 등 공방이 많은 동네인데 예술가들 간에 접점이 없어 아쉬워요. 공식적인 모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 화성시문화재단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고를 접했어요.
- 지난 9월, 성인을 대상으로 캘리그라피 수업을 진행했어요. 누구나 편안히 즐기다 갈 수 있는 갤러리를 꿈꿔왔는데, 동네 주민이 참여하면서 공방의 문턱이 낮아졌죠. 갤러리에는 누구든, 어떤 작품이든 전시할 수 있어요.
- 근처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이 있어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 아쉬워요. 40~60대는 본인을 위한 온전한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하는데요.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하는 문화공간이 생겨나면 좋겠어요. 주변의 유휴공원을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갤러리문화아지트

나마네공방

- 1 봉담에서 바느질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 2 주변이 전부 아파트 단지고,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 있어요.
- 3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요. 저희 공방은 작업 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분리돼 있어요. 커뮤니티 공간에서 동네 주민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고, 이번 공모가 적합하다 생각해 지원했어요.
- 4 동네 문화인이나 창작자를 발굴하고, 동네를 기반으로 문화 활동이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느질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공연 예술가를 섭외해 재즈 공연을 선보였고, 수능생들을 위해 <마침과 시작도 연습이 필요해>라는 프로그램도 기획했죠. 딸의 도움으로 포스터와, 참여자들에게 나눠줄 합격 기원 포토카드를 준비했습니다. 프로그램의 기획·홍보·출연진 섭외, 장비 세팅까지 직접 했어요. 힘들었지만 즐거운 과정이었어요.
- 5 화성의 문화 행사들은 주로 동탄·남양·향남에서 이뤄지는 것 같아요. 봉담에 인구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주민들의 문화 수요도 많아요. 소소한 문화공간도 좋지만 큰 규모의 문화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A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256-18 상가동2층 204호
Q 010-2745-0959, 카카오톡 ID 'namane'



©나마네공방

파미라운지

- 1 '내 집 앞 문화공간'이라는 콘셉트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커뮤니티의 장이 되어 축제·마켓·관광 등 로컬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해요.
- 2 태안 3지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신혼부부 특화단지인 아파트 내 상가에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와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1인 가구의 비율도 높아요.
- 3 11월 즈음에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웰컴데이를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이번 공모가 나서 지원했어요.
- 4 실용 인문학 강연과 공연이 결합된 인사이트 콘서트 '모두의 라운지'를 운영했어요. 육아맘, 워킹맘 등 양육자를 대상으로 기획했죠. 공감커뮤니케이터와 함께 자신의 강점을 개발하는 방법, 생각정리사와 함께 나만의 콘텐츠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클래식기타 이중주, 판소리 아리아 등 지역 예술가의 공연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 5 문화예술 기반의 커뮤니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파미라운지를 만들었어요. 이런 공간이 더 많아져 화성시 전역에서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주관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A 화성시 정조4로 14 상가 107호
Q 070-8018-9087, 인스타그램 @pami_lounge,
네이버플레이스 '파미라운지'



©파미라운지

카페오카페

- 1 작은 카페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 3월, 민화 작가님을 섭외해 그림을 걸고 오픈하게 됐어요.
- 2 문화적으로 열악하다고 생각해요. 주변에 학교가 있지만 변화가 없을 정도로요. 카페에 우연히 들러 본인이 작가라고 말씀해주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지역에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전시나 발표를 할 공간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 3 갤러리 방문객들은 전시된 작품을 보며 다양한 대화를 나눠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공간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높아지던 차였어요. 공모는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한 김소연 작가님의 소개로 알게 됐어요. '우리 공간에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지원했죠.
- 4 김소연 작가님과 함께 추상화 원데이 클래스를 연령대별로 진행했어요. 어려운 기법을 배우기보다는 어떤 색이 마음에 드는지,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지를 꼬집어내는 시간이었죠. 마지막으로 진행한 작은 음악회의 바이올리니스트도 클래스에 참여해, 음악으로 풀어냈고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았어요.
- 5 비봉에는 문화적 시설이 전무해요. 시간과 자원이 많이 필요한 공공시설 설립보다는,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이 제격이라고 생각해요.

A 화성시 비봉면 양노로 37
Q 031-355-6782, 인스타그램 @o_cafe_gallery



©카페오카페

화인규방

- 1 규방공예 공방과 전통찻집을 함께 하고 있어요. 얼마 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공예 작업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내부 배치를 바꿨어요.
- 2 세계문화유산 용건릉, 보통리 저수지 둘레길도 있어 좋아하는 지역이에요. 한적하고, 예스러운 느낌이 규방공예와도 어울리죠.
- 3 화성시문화재단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됐어요. 마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류할 수 있도록 공방의 커뮤니티 공간을 넓혔는데 변화의 시기가 공모 시기와 딱 맞았어요.
- 4 규방공예로 풍경, 꽃병 실린더, 브로치 등 소품을 만드는 클래스를 진행했어요. 성인 여성들이 참여해 규방공예를 즐기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즐거운 시간이었죠.
- 5 전통공예를 이어가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광주 양림동 공예거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작가마다 각각의 집이 있고, 거리를 따라 먹거리, 즐길 거리가 많았어요. 화성에는 작가들이 모여 있는 거리가 마땅히 없는 것 같아요. 예술가들의 커뮤니티이자 시민과의 소통 창구가 되는 플랫폼이 생겨났으면 해요.

A 화성시 세자로475번길 5
Q 031-232-2593



©화인규방



전시장, 예술가, 작품, 관람객을 ‘초연결’하다 2022 기획전시 돌아보기

2022년 전시운영팀에서는 ‘초연결’이라는 주제로 화성시 동서남부권에 위치한 전시장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여러 장르의 작품, 관람객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기획전시를 운영해 왔다. 또한 기획전시 운영뿐 아니라 전시연계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동탄복합문화센터에는 80평 규모의 동탄아트스페이스와 30평 규모의 동탄아트스퀘어, 두 개의 전시장이 있다. 연간 가정의달 기획전시, 신진작가 공모전시, 여름방학 기획전시, 지역작가 초대전시가 진행됐다. 서남부권 사업으로는 팔탄면에 위치한 로얄엑스 전시장과 서신면에 위치한 공평아트뮤지엄아카이브(GAMA), 제부도아트파크에서 전시를 진행했다.

글 허정(전시운영팀)

따뜻한 봄날의 기획전시

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전시 <사알랑>이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박상화, 양지윤 작가가 봄을 주제로 설치-미디어 작품을 선보였다. 작가들은 오랜 겨울 동안 느낄 수 없었던 생명력을 가득 채운 작품을 통해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또한 신진작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임장순, 박서연 작가를 소개하는 전시도 진행했다. 팔탄면 로얄엑스에서 어려운 현대미술을 쉽고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감상의 발견: 느리게, 조용히, 신나게> 전시를 진행했다. 임유정, 이원우, 이지영 작가 3명은 이 전시를 통해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일상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으로 대답해줬다. 제부도아트파크에서는 윤의진 작가가 강릉에서 10여년 동안 그렸던 바다를 서쪽 바다인 제부도에서 소개했다. 또한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 제부도 주민과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비치코밍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재단 직원과 제부리 이장 등 시민이 함께 제부도의 쓰레기를 주우며 그것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전시까지 이어지는 활동이었다.



여름맞이 기획전시

화성시는 지역의 범위가 넓고 동서 간 문화적 격차가 있다. 재단에서는 서남부권 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서신에 위치한 공평아트뮤지엄아카이브에서 서부권 주민을 위한 전시를 개최했다. 공평아트뮤지엄아카이브는 백영철 사진작가의 개인 작업실 겸 갤러리로 폐공장을 리모델링해 전시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초록을 주제로 한 전시, <Grin with green(활짝, 초록)>을 통해 초록이 상징하는 평화, 휴식, 안정 등의 의미를 작품으로 전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했다. 노동식, 유혜경, 이은숙, 임승균 4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을 감상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동탄복합문화센터 내 전시장 2곳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획전시 <코스모스(COSMOS): into the sea>를 진행했다. 해양생태계를 주제로 설치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기후 위기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생각해 볼 기

회를 제공했다. 또한, 전시연계프로그램으로 작가 스튜디오1750과 재활용을 활용해서 '상상 속 심해 괴물들'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객이 작가가 돼서 전시장을 꾸며보는 '신비한 심해 속으로'는 매회 매진을 기록했다. 제부도아트파크에서는 공모단체 화성조각가협회에서 <제부도예술섬프로젝트II - 제부도의 시간> 전시를 시작해서 제부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제부도의 기억을 진행했다.

가을과 겨울의 기획전시

선선한 가을을 맞아 재단에서는 의미 있는 기획전시를 기획했는데, <이타마르 길보아 푸드 체인 프로젝트: 1,022점의 식사일기>와 화성에서 활동해온 작가를 모시고 진행한 지역작가초대전시 I, II <화성별곡: 이윤기회고전, <시간을 그리는 세가지 방법>이다. 특히 궁평아트뮤지엄아카이브에서 진행한 <이타마르 길보아 푸드 체인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태생 네덜란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한국투어를 통해 국내에 처음 소개하는 전시였다. 봉담에 위치한 엄미술관에 이어 순회전시로 진행했고 미래의 식량 전쟁과 기후 위기 등의 문제를 내포한 전시로 구성됐다. 동탄 아트스페이스와 동탄아트스퀘어에서는 지역작가를 조명하는 전시를 기획했다. 화성에서 태어나 화성에서 작품활동을 이어간 이윤기 작가의 전시(9월)로 시작해서 지역 원로작가인 박석운, 김원기, 임연웅 작가(11월)를 소개하는 전시로 맥을 이어갔다. 제부도아트파크에서는 화성시조각가협회의 아카이브전시로 공모 전시를 마무리하고 백영철 사진작가의 화성을 찍은 사진전으로 제부도의 석양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3년 전시 미리보기

2023년에는 동탄북합문화센터 전시장 두 곳과 제부도아트파크 전시장을 올해와 같이 운영한다. 또한 유휴공간 활용사업으로 관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을 발굴해서 시민들을 위한 전시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폐교나 공실 상가 등을 활용해서 지역과 공간 특성에 맞춘 기획 전시를 운영하고,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라크몽 공간을 화성시로부터 위탁받아 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작가작품판매지원사업인 <작가 H의 상점(가제)>을 신규사업으로 운영하며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화성시 지역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해서 작가 홍보 및 작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관람객에게는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 겨울, 한 해를 정리하는 마지막 공연

어느덧 2022년의 끝자락이 다가왔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올해도 잘 해냈다’는 안도감과 이유 모를 아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계절이다. 저마다 열심히 달려온 자신을 다독이고, 새로운 다짐으로 마음을 채우는 이때.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2022년 마지막 기획공연으로 한 해를 유쾌하게 마무리하는 것은 어떨까?

글 황용진(공연예술팀) 사진 제공 ㈜이엘프리스



온가족과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 뮤지컬 <가요톱텐>

“응답하라 8090! 신나는 즐거움과 따뜻한 감동을 전하는 시간!
그 시절, 우리와 함께 했던 추억 여행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과거의 기억과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뎌져 간다. 눈부시게 행복했던 순간도 시간이 지나면 마참가지다. 그렇기에 지나간 시절에 두고 온 순간을 꺼내보는 일은 애뜻하고, 아름다운 건지도 모른다. 화성시문화재단이 준비한 뮤지컬 <가요톱텐>은 멀어진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뮤지컬 <가요톱텐>은 1980~90년대를 배경으로 해, 그때 분위기 그대로를 무대로 가져왔다. 무대, 의상, 소품 등 과거의 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장치들은 많지만, 친구들과 흥얼거렸던 노래만큼 추억을 회상하기 좋은 것은 없다. 뮤지컬 <가요톱텐>은 당시의 유행곡을 선별해, 우리를 그 시절에 몰입하게 만든다.

극은 자신의 색을 담은 밴드 음악을 하는 ‘상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상후’는 자신의 음악적 고집을 응원하는 연인 ‘연정’의 희생에 보답하고자,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자작곡을 선보여 큰 인기를 얻게 된다. 하지만 ‘연정’은 일하던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종되고, 크게 상실한 ‘상후’는 술에 의지하는 나날을 보내게 된다. ‘상후’와 함께 활동하던 가수 지망생 ‘미선’은 ‘상후’가 선물한 노래로 스타가 되어가고, 그의 연인 ‘덕철’도 ‘상후’를 돌보다 발견한 자작곡을 통해 가요톱텐에 데뷔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상후’는 과거에 연정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적힌 팬레터를 받게 돼, 발신자인 요양원을 찾아가며 펼쳐지는 이야기는 담았다.

<가요톱텐>은 청춘의 사랑과 고뇌를 담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어른에게는 진한 향수를 느낄 공연을, 어린이에게는 신나는 무대를 제공한다. 온 가족이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가요톱텐>은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화성아트홀에서 만날 수 있다.

[뮤지컬 on stage3] 가요톱텐

일시 2022년 12월 23일(금) 19시 30분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1층 3만원 / 2층 2만원
대상 초등학교 이상 관람가
문의 1588-5234

사슴의 눈을 본 적이 있나요?

등 위의 하얀 반점, 양증맞은 꼬리, 반짝이는 눈망울이 특징인 대륙사슴은 현재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상태다. 언젠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며, 위기의 동물을 돌보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륙사슴을 소개한다.

글·그림 배서윤(2021 화성시문화재단 서포터즈)

팝업 정혜경(팝업 아티스트)



몇 해 전, 아이들과 함께 간 동물원에서 아기 꽃사슴을 본 적이 있다. 등 위로 눈이 내린 듯 선명한 하얀 반점, 양증맞은 꼬리 그리고 마음을 정화하듯 순수하게 반짝이는 눈망울에 한참이나 눈을 떼지 못한 채 사슴을 바라봤다.

사슴은 예로부터 우애가 깊은 동물로 여겨졌다. 이동할 때는 머리를 높이 들어 뒤쳐지는 무리가 없는지 살피고,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를 내어 알렸다고 한다. 이 소리는 사슴 록(鹿)에 소리 낼 명(鳴)을 써서 녹명이라 부른다. 혼자만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닌, 배고픈 동료들을 위해 있는 힘껏 소리 내는 사슴을 떠올리면 괜스레 마음이 따뜻해진다.

토종 꽃사슴으로 불리는 대륙사슴은 과거에는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에 흔히 분포했다. 조선시대부터 약재로 쓰이는 녹용과 녹각, 사슴피를 얻기 위한 사냥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다, 1940년대 일제강점기에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야생동물을 구제한다'는 명목으로 대량 학살당해 개체 수가 급감했다. 남한에서 야생 대륙사슴은 멸종됐으며, 사육의 목적으로 일본과 대만에서 들여온 꽃사슴은 대륙사슴의 아종이라고 한다. 남한에서 자취를 감춘 대륙사슴은 현재 북한과 러시아에 서식하고 있다. 전염 우려로 원종 확보는 어렵지만 공동 연구를 통해 수정란을 확보하거나 증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故 이어령 선생은 "신과 생물의 중간자로 인간이 있기에 인간은 슬프고 교만한 존재지. 양극을 갖고 있기에 모순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라고 말했다. 죽지 않는 신, 죽음을 모르는 동물 그 사이의 인간은 죽음의 의미를 아는 동물이라고 했다. 한 인간으로서 사라져가는 대륙사슴을 떠올리며, 동물원에서 보았던 아기 사슴의 눈을 떠올리며, 그들이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려본다. 엄마 사슴이 아기 사슴을 돌보듯 따뜻한 손길로 위기의 동물들을 돌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연을 가꾸어 길을 열어주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대륙사슴 팝업 카드 만드는 법



동영상 보기

재료 가위, 칼, 접착제나 양면 테이프 등

도안의 검은색 실선은 칼이나 가위로 잘라주고, 검은색 점선은 모두 접어 준비한다.
(빛금은 같은 숫자끼리 붙이는 접착면이다.)



풀잎 조각의 지지대를 만들기 위해 접착면 1-7, 1-8을 카드 1-7, 1-8에 각각 붙여준다.



풀잎 조각의 1-6을 카드 1-6에 붙여준다.



손잡이 고정대를 만들기 위해 1-3을 카드 1-3에 붙여준다.



손잡이의 접착면 1-1을 서로 붙여준다.



손잡이에 표시된 화살표가 왼쪽을 향하게 뒤집은 상태로 끼워주고, 손잡이 뒷부분은 카드에 고정시킨 고정대에 끼운다.



손잡이의 구멍이 난 부분은 아래쪽으로 접어주고, 사슴 머리를 붙일 기둥의 접착면 1-2를 서로 붙인다.



기둥의 아래쪽은 손잡이 구멍에 끼우고, 기둥의 위쪽은 접지선을 따라 접은 부분(1-5)을 카드 구멍으로 통과시켜 끼워준다.



카드 앞면 1-5에 사슴 머리인 1-5를 붙여준다.



화살표가 그려진 손잡이를 움직여 사슴 머리가 잘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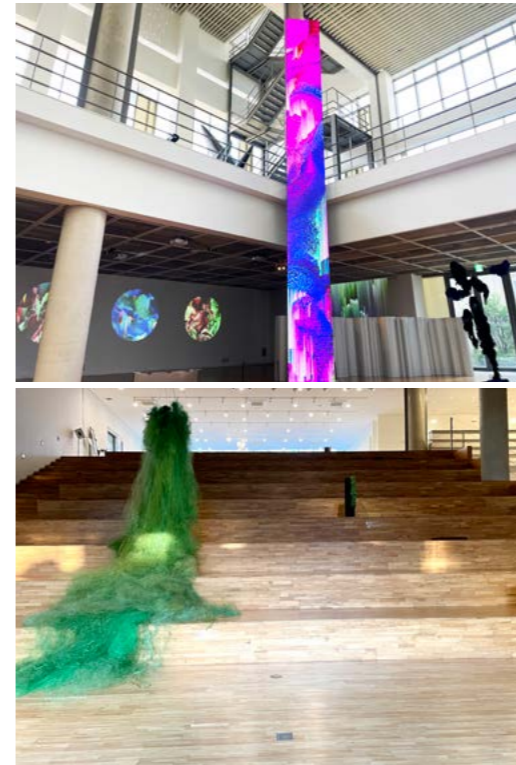
완벽한 연말연시를 위한 겨울 데이트 코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연말연시. 문득 보고 싶은 얼굴이 떠오른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고 싶은 이때.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볼 만한 화성의 매력적인 데이트 코스를 소개한다.
글 차영은(경영지원팀)

#팔탄면 #전시 #미디어아트 #이색데이트 #디저트맛집

퍼플마블 미디어 아트展 2부 Now-here, This-topia 지금 이곳



©화성ICT생활문화센터

팔탄에 위치한 화성ICT생활문화센터는 총 6개월에 걸쳐 <퍼플마블(Purple Marble)> 전시를 1, 2부로 마련했다. 2부인 이번 전시는 청년작가 9팀이 참여한 미디어아트 전시로 프로젝션, LED 영상, 인터랙션 사운드, 플랜테리어, 공예, 키네틱 설치작품 등 장르를 초월한 작품들을 통해 창의성 넘치는 세계관을 만날 수 있다. 생명 자원이 넘치는 행성, 지구는 가까이 들여다보면 인간사의 누추함이 드러난다. 녹색의 아름다운 지구는 피, 땀, 눈물, 더위, 혐오로 가득한 붉은 행성의 모습으로 황폐화되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가 아닌 푸른빛과 붉은빛 그 사이의 '퍼플'의 색채를 덧입혀 마지막 희망을 표현했다. 이번 전시는 혼란한 이 시대, 건강한 판단과 긍정적인 사고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관람은 무료로 네이버 사전예약 또는 화성ICT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된다.

- 2022년 12월 24일(토)까지 10~17시(매주 월요일, 공휴일 휴관)
- ▲ 화성ICT생활문화센터(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95-20 로얄엑스 R2)
- T 070-7777-7617-8

뜨끈한 온천이 생각나는 계절 장안면, 팔탄면 온천

'목욕재계'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 목욕으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또 이렇게 추운 날에는 뜨끈한 온천이 생각나기 마련이다. 서해안고속도로 발안IC 부근 장안면과 팔탄면에는 온천들이 몰려 있다. 화성에서 처음으로 공식 허가를 받은 온천인 울암온천숫가마테마파크는 지하 700m 암반에서 끌어올린 천연 온천수를 사용한다. 온천욕은 물론 숫가마 찜질 시설도 있어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월문온천은 대욕탕 안에 여러 사우나가 있고 노천탕도 연중 개방한다. 미네랄 식염 온천수로 유명한 화성(발안)식염온천, 온천시설 외에도 워터파크, 찜질방, 허브공원 등 대형 시설을 갖춘 하피랜드가 있다.



©울암온천숫가마테마파크

- 울암온천숫가마테마파크 ▲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434-14 T 031-354-7400
- 월문온천 ▲ 화성시 팔탄면 버들로1597번길 5 T 031-226-5000
- 화성(발안)식염온천 ▲ 화성시 장안면 황골길 52 T 031-351-9700
- 하피랜드 ▲ 경기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 888 T 1577-5752



©소동춘

아기자기한 디저트 맛집 소동춘

팔탄면사무소 근처에 위치한 작은 카페, 소동춘은 눈에 띄지 않지만 아기자기한 예쁜 카페다. 수제 바닐라빈라떼, 아인슈페너, 쓱라떼, 수제청으로 만든 에이드와 차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스콘, 다쿠아즈, 쿠키 등 매장에서 손수 만든 디저트들도 준비되었다. 맛있는 음료와 달콤한 디저트, 아늑한 공간에 친절한 사장님까지, 나만의 아지트에 저장하고 싶은 카페다.

- 수~월요일 11~18시(매주 화요일 휴무)
- ▲ 화성시 팔탄면 마당바위로 111-1



전통찻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 차 마시는 뜰

정겨움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고즈넉한 한옥에 작은 정원까지 분위기 있는 전통찻집, 차 마시는 뜰. 특히 겨울과 어울리는 따뜻한 전통차 한 잔 해보는 건 어떨까? 수제로 만든 차만을 판매하는데 오랜 시간 정성들여 달였다든 진한 쌍화차, 대추차, 제철 과일로 담근 청으로 만드는 과실차, 향이 좋은 우리 꽃 차, 사이드메뉴로는 가래떡구이, 한과, 약과 등이 있다

- 매일 11~22시
- ▲ 화성시 세자로475번길 5

#안녕동 #회화전시 #커피맛집 #만화방

소다미술관 실내 전시 WE ARE COLLECTORS! : 나의 반려그림

안녕동에 위치한 소다미술관 실내전시장에서 <WE ARE COLLECTORS! : 나의 반려그림> 전시가 열리고 있다. 각기 개성이 다른 33명의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나와 잘 맞는, 나의 일상과 어울릴 작품을 골라보고 수집하는 경험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이번 전시는 우리 삶에 행복과 위로를 전하는 반려동물, 식물뿐만이 아니라 그림도 '반려그림'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전시를 관람하며 나의 예술적 취향을 찾아보고 관람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하나를 고르면 포스터로 소장할 수 있다. 소중한 사람과 방문해 서로의 예술 취향을 공유하고, 소장한 그림으로 이 시간을 추억해 보자.

- 2023년 2월 26일(일)까지, 수~일 10~18시(매주 월, 화요일 휴무)
- ▲ 화성시 효행로707번길 30
- T 070-8915-9127



©소다미술관

놀이하고 먹고! 만화카페 만화당

추운 겨울, 실내에서 놀고 쉬고 먹고 싶다면 안녕동의 만화카페 만화당을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 깔끔한 공간에 1인용부터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테이블과 소파, 의자 등 다양한 좌석이 준비돼 있다. 만화카페의 기본인 수많은 만화책들부터 다양한 음료, 각종 볶음밥, 라면류, 분식류까지 메뉴도 다양하다.

- 수~월요일 11~21시, 매주 화요일 휴무
- ▲ 화성시 효행로414번길 16-1



©만화카페 만화당

함
께
하
다

The 이 다

HELLO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놀고 함께 만드는 예술수업 <플레이엄>
예술로, 엠바디어스

LIST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북큐레이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책 한 권

PEOPLE

화성인의 대답
올해의 마지막 날, 누구와 어디에서 보내고 싶나요?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문화소식

LETTER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PLACE

배포처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놀고 함께 만드는 예술수업 <플레이엄>

예술로, 엠바디어스

예술인은 시민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다. 팬데믹 이후 우리의 일상이 변하는 와중에도 예술인은 작품을 통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섰다. 이제 예술인들은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창작하고 함께 즐기는 예술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Play'와 'Museum'을 합성해 이름 지은 <플레이엄>에서 예술인과 시민은 함께 호흡하고 생각을 공유한다. '예술로', '엠바디어스'를 만나 지역사회와 더불어 공존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이야기한다.

글 이종철 사진 남윤중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이화진(이하 이) 안녕하세요. '느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진행한 '예술로'의 이화진입니다. 저희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플레이엄>을 알게 됐어요. 7년 정도 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광고를 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지원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이너로 오래 활동했고, 육아로 인해 쉬었다가 화성으로 이사 오면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홈스쿨에서 공방도 열어보고, 재능 기부도 했다가 교육 봉사를 하면서 차근차근 예술교육으로 영역을 넓히게 된 거죠.

최중희(이하 최) 안녕하세요. '공간과 나, 시각적으로 생각하기'를 진행한 '엠바디어스'의 최중희입니다. 작가로서 활동하다 보니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떤 작품이 좋은 작품이라고 느끼는지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미학을 시작으로 뇌과학과 심리학, 인지과학 분야까지 공부하게 됐어요. 최근에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라는 개념을 알게 됐는데, 서양에서 그동안 몸과 정신을 분리해왔던 것이 이제는 몸에 의해 정신이 구현된다는 개념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된 거죠. 작년에 우리나라 대학들이 모여

체화된 인지에 관한 학회도 생겼어요. 올해 2월에는 예술단체 '엠바디어스'가 만들어졌고, 예전에 예술의전당 영재 아카데미에서 3년 정도 강사로 활동한 경험을 살려 <플레이엄>을 통해 선보이게 됐어요.

참여 대상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선정했는지 궁금해요.

이 처음 기획안을 세울 때 저를 포함한 네 분의 선생님과 함께 대상자 선정 작업을 했을 때 많은 고심을 했어요. 다양한 대상자군을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 문득 장애인 자녀를 가진 엄마들이 우리 교육에 참여한다면 어떨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예와 공예 교육인 만큼 아름다운 재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면 장애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적지 않거든요. 사실 보통의 아이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더 힘들고 더 강해져야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엄마들에게 잠깐이나마 예술로 힐링하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며 자신을 잊은 채 살아온 엄마들이 스스로 창작 활동의 주인공이 되어 예술적 감수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채워나가는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술로 이화진

최 화성시는 새로 가족을 이루어 사는 젊은 분들이 많고, 특히 도시가 성장하면서 어린이가 중요한 구성원이 되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수업을 많이 진행해왔는데, 학부모 밴드모임이 있을 정도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교육 자체도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하는 형태인데, 어린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하려면 함께 몸을 맞대며 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진화되어왔고,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죠. 그렇게 어린이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공간을 만들고 해체하며 우리 몸을 이해하고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프로그램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진행 중에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부터 참여자 분들에게 한번씩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프로그램의 의도와 핵심 포인트, 진행방식 등을 소개했죠. 초기에는 참여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홍보해줬어요. 입으로 소개해주고 맘카페에도 올려주며 점점 참여 인원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덕분에 프로그램도 풍성해졌죠. 어린이들이 블록으로 성이며 집, 다리 등을 만들고 해체하며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강사와의 신뢰가 쌓이고, 몸 사용에 대한 요령과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돼요. 과정이 진행될수록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자신만의 세계가 만들어지죠. 한번은 프로그램 중에 사용한 테이프를 모아서 버릴 겸 참여자들이 작은 공을 만들었는데, 어떤 아이가 다음 주에 그 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른들한테는 그저 쓰레기지만 아이한테는 경험이 압축된 어떤 애착의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든 걸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웃음).

이 저희는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금속, 꽃, 실, 손글씨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했죠.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열여섯 명씩 참여했는데 10회의 프로그램이 짧게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자녀를 돌보느라 바쁘게 다 하루에도 몇 번씩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분들도 많아서 프로그램이 너무 길면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나중에 설문지를 보니 더 길게 하고 싶다며 아예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분도 있었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딱히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 고민했던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공예와 디자인 등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참여자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대로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라는 말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예술이 꼭 어려운 건 아니라는 것과 생각을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회의도 자주하고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예시를 보여주며 아이디어를 풀어낼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자들을 통해 느끼게 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참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 작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연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술교육을 하면서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보곤 하는데, 초등학생한테 물었던 질문을 대학생에게도 해보면, 초등학생들의 답변이 더 신선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 초등학생이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대답하는구나, 성의 없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구나하는

걸 느꼈죠. 초등학생 나름의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대답인 거고, 대학생이 되어 질문의 의도를 알게 됐다고 해서 대답에 양적·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초등학생에게 철학적 질문을 던지면 그 나 이 때 할 수 있는 사고 안에서 답이 와요.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어른들한테는 또 다른 질문이 되어 돌아옵니다(웃음). 그러면 저희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계속 예술로 던져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참여자들이 전한 말 중에서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좋았던 말은 ‘여기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나한테 집중해본 시간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들이 자신을 잊고 살았다는 게 정말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이 작은 여유만으로도 이들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됐고,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껴볼 수 있게 한 것이 명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몇 번의 경험만으로는 이들의 삶을 바꿔놓지는 못하겠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고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강사로서도 매 수업마다 ‘어떻게든 이 과정을 오늘 끝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는 ‘굳이 끝내지 않아도, 미완성인 상태로 괜찮다’라고 바뀐 것 같아요. 참여자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자체만으로도 아름답다고 느끼게 된 거죠.

〈플레이엄〉은 창작자와 향유자 등 참여자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인데.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할 때 예술인들이 참조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최 흔히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죠. 공부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친구에게 가르쳐줄 때, 비로소 그 지식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처럼요. 지금은 예술인들이 관객들과 교류하며 관계성을 통해 창작 작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예술 세계를 관객과 함께 호흡한다는 개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면 그것이 곧 창작 작업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마도 많은 경우에 창작을 위해 예술인이 됐지 교육을 위해 예술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플레이엄〉과 같은 예술교육을 경험하고 쌓아나가면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이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고,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또 관객들을 만나면서 창작 작업을 종합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길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우리 주변에는 예술을 접하고 싶고 창의적인 창작을 통해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할 엄두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술 영역에 한 발자국 들어올 수 있

도록 이끄는 역할을 예술인들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응원하고 도전 의욕을 높임으로써 조금씩 예술 영역으로 넘어오는 대단한 일을 해볼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처럼 예술을 통한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모든 시민이 예술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는 도시가 더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술인들이 노력하고 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엠비디어스 최종희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북큐레이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책 한 권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에는 화성시의 독서문화를 선도하고 도서관과 시민을 이어주는 '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2기'가 있다. 좋은 도서를 선정하고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시민 북 큐레이터', 도서관의 화단을 아름답게 하는 '그린 라이브러리언', 유아, 아동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북 리더', 개인 SNS 채널을 통해 도서관을 홍보하는 '소셜 인플루언서'로 이들은 한 해 동안 도서관에서 각자의 재능에 맞는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해왔다. 추운 겨울, 시민 서포터즈가 추천하는 따뜻한 책을 만나보자.

글 화성시문화재단도서관 시민 서포터즈 2기(김은하, 박유련, 박원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시민 북 큐레이터, 김은하 추천 도서 《소중한 사람에게》, 전이수, 웅진주니어, 2020



나는 행복하다.

오늘 아침에 문득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고, 내 두 손이 내가 하려는 일을 잘 따라 주어서 행복하고,
내 두 발이 내가 가려는 곳에 갈 수 있게 잘 따라 주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마법처럼 마음을 잘 쓰다듬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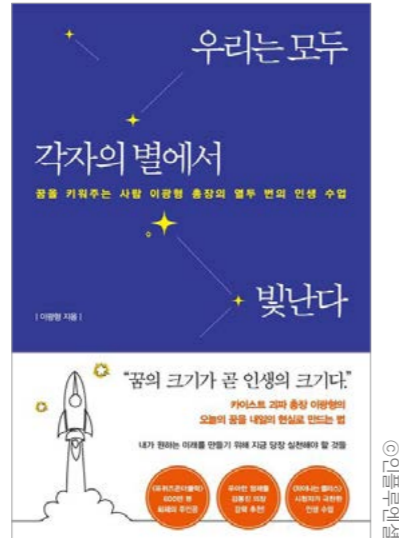
드러누워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늘 나를 지켜 주어서 행복하고,
힘차게 달릴 때 휘날리는 나의 머리카락이 바람의 존재를 알려 주어서 행복하다.

작은 꽃 한 송이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어서 행복하고,
시원한 소나기를 맞으며 춤을 출 수 있어서 행복하다. (본문 중에서)

동화작가 전이수는 영재발굴단의 그림 영재로 알려져 있다. 살고 있는 제주도에 '걸어가는 늑대들'이라는 갤러리를 통해 그림을 전시하고 있으며, 그림을 아트 상품으로 만들어 수익을 제주도의 미혼모센터와 국경없는의사회, 미안마와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15살의 어리지만 깊은 생각과 따뜻한 마음, 생각을 실천하는 행동력은 어른들보다 깊고 강하다. 작가는 직접 그린 그림들과 생각을 담은 《소중한 사람에게》 그림책을 통해 자기 생각을 전달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지구 반대편의 친구들에게 느끼는 미안함,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으로 인해 죽어가는 동물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핸드폰만 보는 아이들에게 하는 말 등 짧은 글들을 읽고 있으면 깊은 깨달음을 느끼게 된다. 생각이 깊은 글들과 함께 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보는 것 또한 즐겁다. 동화책이지만, 오히려 무엇이 중요한지 잊고 사는 어른들이 읽어보면 좋은 어른을 위한 그림책이다.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시민 북 큐레이터, 박유련 추천 도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 이광형, 인플루엔셜, 2022



사과와 바나나는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

각각이 지닌 맛이 엄연히 다른데 어떻게 경쟁이 되겠는가?

P.21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인성과 리더십, 창의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교실 안에서 배울 수 없다.

P.160

이 책은 뭐랄까... 너무 멋진 어른, 너무 잘살아온 신사 할아버지가 자식들과 손녀, 손자에게 삶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최대한 부드럽게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편지 같다. 세상에는 각자의 고유한 빛이 있고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남의 기준대호가 아닌 괴짜가 되어보라는 이광형 총장만이 할 수 있는 말들도 적혀있다. “더 크게 성장해라! 넌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해!”라고 말하면서도 모두 같은 길을 가도록 지도받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렇게 지도하는 어른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도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는 삶의 지혜가 가득한 책이다. 조금은 삭막한 세상인 지금,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도 꼭 한 번씩 이 책을 읽어보길 추천한다.

그린 라이브러리언, 박원준 추천 도서

《일단 내 마음부터 안아주세요》, 윤대현, 위즈덤하우스, 2019



우리는 착하고 아름다운 영화만 보지 않는다. 때로는 검은 욕구로 가득한 영화를 보며

인간 내면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감동받거나 성숙해진다.

비평가들은 후자의 영화가 더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기도 한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 내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영화에 대해서도 검열 없이 보는 여유가 필요하다.

개인의 생존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나 이기적 행동만으로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기에 고급진 쾌감을 주도록 진화된 이타적 감정, 행동 모두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것이 행복이라고 정의하면 행복하기가 정말로 힘들다.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라고도 하니 말이다.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회로애락의

여러 감정을 느끼는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은 심리, 정신의학, 뇌 과학에 기반한 마음 관리를 위한, 마음에 대한 탐구개발 가이드북이다. 마음과 소통하는 법,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법, 마음 충전법 등을 통해 지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주변 일상들이 점차 회복되어 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심리적 상처와 갈등이 증폭됐다. 특히 최근에 발생한 헬러원 축제 현장 사고 등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증가했다. 이러한 시기에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치료제로써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책을 추천한다.

화성인의 대답

2022년의 달력도 어느덧 한 장만 남았다. 이맘때쯤 되면 항상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생각이 든다. 한 해를 마무리할 마지막 하루, 12월 31일에는 소중한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화성인의 올해 마지막 날이 궁금해졌다.

“올해의 마지막 날,
누구와 어디에서 보내고 싶나요?”

차보영 | 개인사업자
12월 31일, 역시 가족과 삼겹살!

우리 가족은 매년 마지막 날 삼겹살을 먹는다. 올해 12월 31일에도 남편, 아들 손 붙잡고 콩나물무침이 근사한 동네 단골 삼겹살집에 가려고 한다. 상추쌈에 한 해 묵은 칼칼함과 아쉬움을 삼겹살이랑 같이 짹짹 씹어, 푹푹 씹어, 꿀꺽 삼켜 버리고, 소주잔에 담은 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소망 한 잔씩 주욱 들이키고, 내 걱정 남편 근심 아들 고민까지 뜨거운 불판 위 고기, 김치와 함께 조각조각 잘게 찢어 달달 볶아 굵어먹고, 일어서서 집으로 가는 길엔 겨울 제철 음식 아이스크림 하나씩 입에 물고 올해의 '베스트 흑역사'를 뽐으며 갈갈거리다가, 우리 가족 손 꼭 잡고 건강하게 있어 주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고 내년에도 잘 부탁한다고 간지러운 말도 꼭 하려고 한다.

은광주 | 주부
엄마의 겨울

내 어린 시절의 겨울은 그저 춥고, 또 추웠던 길고 긴 날들이었다. 특히 12월의 마지막 날 그 추위는 절정이었다. 넉넉지 못했던 가정형편 탓도 있겠지만, 살기 바쁜 부모님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하기 힘들어 마음마저 차가운 겨울이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엄마가 된 나의 겨울은 따뜻하다. 따뜻한 집에서 가족 모두 함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평범해 보이지만, 그것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에 감사하다. 올해 12월 31일에도 따뜻한 집에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그 따뜻함을 먹고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눈으로 말해주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2023년 11살이 되는 시윤아, 10살이 되는 시완아, 엄마는 겨울이 추운 줄만 알았는데 너희를 만나고 겨울도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엄마는 너희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박민주 | 직장인
2022 감사 나무에 열매 달기



2022년 12월 31일, 화성으로 이사 와서 처음으로 맞는 2022년의 마무리는 가족의 보금자리인 우리 집에서 지난해 입양한 강아지 '로아'와 함께 근사한 연말 파티를 하고 싶다. 화성시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만나 가족이 된 로아, 성실하고 다정한 남편, 사랑하는 두 딸과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적어 감사 나무에 주렁주렁 달아보려고 한다. '근무지 이동으로 적응이 힘들었지만 새로 배우게 되는 것이 많아 감사한 마음이다', '로아 털이 온 집에 푹푹 날려 청소는 힘들지만 로아가 온 가족에게 찢힌 사랑을 가르쳐주니 감사하다' 등등. 이렇게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로를 껴안으며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강민정 | 고등학생
그날은 흰 눈 대신 행복이 흩날렸으면 좋겠어

고3 학생인 나는 작년 여름방학부터 입시에 전념하느라 가족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어본 기억이 희미하다. 항상 빠듯한 스케줄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빵으로 혼자 대충 때우기 시작했고 언제부터인가 내게 식사는 귀찮고, 시간만 잡아먹는 행위로 느껴졌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유년 시절 식탁은 인스턴트 음식이 올라간 좁은 편의점 식탁이 아니라, 따뜻한 쌀밥과 가족 간 주고받는 대화들이 있었는데 말이다. 입시를 끝까지 잘 마무리한 뒤, 예전처럼 따뜻한 대화가 가득한 식탁에서 가족들과 올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 입시 준비하느라 고생한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부모님과 한껏 예민했던 내 성질을 다 받아준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싶고, 그동안 수고했다고 위로도 받고 싶다. 누군가에게겐 마지막 하루가 그저 다른 하루와 똑같이 느껴질지라도, 내게는 10대의 마지막 하루이자 20대를 시작하게 되는 하루라는 생각에 굉장히 뜻깊게 느껴진다. 이런 하루를 가족과 따뜻하게 마무리하고 나면, 앞으로의 인생에 두려움과 고난들을 마주쳐도 그때의 기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뜻한 추억은 생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니까. 정말, 그날에는 평평 흩날리는 눈 대신 행복이 흩날렸으면 좋겠다.

김보람 | 주부
단 하루라도

올해의 마지막 날은 식상하지만 당연하게도 내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 여느 때처럼 내가 만든 정성스러운 밥상이겠지만, 단 하루라도 남편에게는 우울증 환자가 아닌, 아이들에게도 마녀가 아닌, 누가 봐도 정상적인 나 자신으로 가족들과 어우러지고 싶다. 더없이 행복한 가정. 단 하루라도 그렇게 지내고 싶다. 단 하루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나로 인해 행복한 가정이 되어 올해를 마무리하고 싶다.



전신안 | 전문직
43년 모태솔로 동생이 12월 31일에 결혼합니다!

43년 모태솔로 동생이 12월 31일에 결혼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혼자 다 견뎌내고 열심히 살던 동생이 드디어 좋은 짝을 만났다. 짝신도 짝이 있던 어른들의 말씀이 맞나 보다. 멀리 거제도까지 시집을 가게 되어 걱정되지만 늦게 만난 만큼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길 바란다. 동생 결혼을 축하하러 오시는 일가친척분들과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예정이다. 이제 평생 202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잊지 못할 것 같다. 사랑하는 순원아~ 행복하게 잘 살아~♡

윤예진 | 고등학생
어제, 오늘, 내일

책을 읽다 문득 달력을 봤다. 그러고서야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것을 알았다. 사실 당연한 일이다. 학생인 나로서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또 내일 같기에 지나가는 나날을 크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아챈 김에 생각해봤다. 남은 이 한해를 어찌 보낼까. 올해의 마지막 날은 토요일로, 놀기에 좋은 날이다. 그러나 지금껏 신정과 설날은 챙겨 봤어도 마지막 날은 기념하지 않았기에 뭘 해야 좋을지 막연하기만 하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기로 했다. 낮에는 아마 공부를 할 것이다. 아침이 지난 시간에 느지막이 일어나 학원에 가거나, 학원이 쉬는다고 하면 독서실에 가겠지. 만약 학원에 간다면 시시덕거리며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점수 더 올릴게요.”하며 수다를 떨지도 모른다. 집에 돌아오면 나와 마찬가지로 막 귀가한 가족이 있겠지. 그럼 내년의 목표를 떠들며 일련의 계획을 나열해 보리라. 그렇게 어느 하루와 다를 바 없는 평탄한 날을 보내리라. 오늘은 어제와 같고, 또 내일과 같기에. 내년도 올해처럼 즐거울 거야, 마음속으로 가만히 읊조려본다.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블로그

‘PEOPLE’은 주제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글 또는 그림, 사진과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호 PEOPLE 독자공모는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특별한 선물과 함께 《화분》 지면에 이야기를 실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밝히는 만세길의 빛
2022 화성3·1운동만세길 시민참여전시
〈빛 산책자〉



2023년에도 Let's PLAYEUM!
화성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 성료



화성시문화재단은 10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만세길 방문자 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참여전시 〈빛 산책자〉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19년 3·1운동 당시 화성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햇불 시위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한지 등불 만들기 등을 통해 독립의 염원을 생각해보 수 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전시 연계프로그램 '독립운동의 등불 만들기'와 '만세! 빛으로 외치자'도 운영한다. '독립운동의 등불 만들기'를 통해 관객은 한지 등불에 독립의 염원을 담은 자기만의 글귀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완성된 작품은 전시실에 스스로 비치하고, QR 안내를 통해 참여자 명단에 이름과 사진을 올릴 수 있다. 3·1운동 햇불 시위에 참여했던 이들과 함께 등불로 만세길을 밝혀볼 수 있는 기회다. 등록된 작품은 전시 종료 후에도 온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다. '만세! 빛으로 외치자'는 1919년 당시의 의상을 입고 독립운동가가 되어 기념사진을 찍는 사진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여한 사진을 SNS에 올리고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시와 연계프로그램은 관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독립운동문화팀 070-7775-7516

지난 5월 화성시 전역에서 시작된 '2022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플레이엄〉'이 12월 5일 결과워크숍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플레이엄〉은 예술가와 시민이 작품과 예술 활동을 통해 자유롭게 노는 'Art Play'와 창의적인 예술교육 활동의 집약 공간을 의미하는 'Museum'을 지향하며 기획됐다. 화성시문화재단은 기존 예술 기능 교육에 머물러있던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지역 생활권에서 예술가를 만나 시민의 예술교육 향유 기회를 확대하도록 2022년 사업을 전환하며 〈플레이엄〉을 새롭게 시작했다. 올해 12개의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고 26개의 공간에서 총 440회를 운영해 4,000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영유아부터 노인, 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참여자들은 "코로나로 잊었던 일상을 예술로 함께하고 예술가와 그의 작업을 가까이에서 만나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예술교육지원팀은 2023년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적 삶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예술가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예술교육지원팀 031-290-4691

예술가와 함께, 가치 있는 문화예술교육
화성시 문화예술교육 기획사업 <같이놀이터> 성료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우정읍의 민들레연극마을은 가을 풍경을 느끼며 놀이하는 아이들 소리로 가득했다. 예술교육지원팀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남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예술캠프 <같이놀이터>를 4회 진행했다. <같이놀이터>는 사전 전문가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해 화성시 서남부권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지역 예술단체 극단민들레와 ㈜심름의 협업으로 기획됐다. 유난히 화창했던 네 번의 토요일, 7개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 181명은 예술가와 함께 뛰놀며 문화감수성을 키웠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고학년의 움직임 워크숍, 적정기술 활동과 새로운 시선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창작하며 자신의 고유성을 이해하는 저학년 미술 활동을 진행했고 함께 모여 전통 연희 기놀이로 마무리했다. <같이놀이터> 담당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 친숙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예술교육지원팀 031-290-4693

에너지는 제로, 즐거움은 배로
왕배푸른숲도서관 <가을밤, 옥상달빛극장>



왕배푸른숲도서관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가을밤, 옥상달빛극장>이 열렸다. <가을밤, 옥상달빛극장>은 도서관 3층 옥상 쉼터 공간에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충분한 힐링과 일상의 안식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심야 영화 상영 프로그램이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 콘셉트에 따라 참여 시민은 캠핑 의자, 돛자리, 소형 원터치 텐트 등을 지참해 온 가족이 함께 안락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인증 도서관으로써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으로 팝콘과 음료를 준비해서 텀블러와 다화용 용기를 가져온 시민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참여한 가족 대부분은 "캠핑 하러 온 기분이 들어 너무 좋았다. 야외에서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시간이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좋은 경험이었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됐다"라며 만족감을 보였다. 11월에는 주성철 영화평론가의 <봉준호와 박찬욱, 한국영화의 이해>와 안용태 인문학 작가의 <하이데거를 통해 보는 영화, 결혼이야기>를 주제로 영화 인문학을 선보인다. 작가가 들려주는 영화 밖 감독 이야기, 영화 속 주인공 이야기, 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등을 통해 시민에게 또 한 번 감동의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왕배푸른숲도서관 031-372-4435

왕배푸른숲도서관 테마 프로그램
<2022년 환경아카데미> 성료



왕배푸른숲도서관에서 운영하는 <2022년 환경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지난 10월 마무리됐다. 왕배푸른숲도서관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도서관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활용한 <환경아카데미>를 작년부터 운영해왔다. 올해 <환경아카데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성인 및 아동 대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했다. 하반기 <환경아카데미>에서는 성인 강좌 '업사이클링 팝업북 만드는 엄마'와 아동 강좌 '왕배푸른숲 생태 놀이터'가 진행됐다. 업사이클링 팝업북 강좌에서는 오래된 그림책을 오리고 붙여서 새로운 팝업북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작업이 진행됐다. 한 수강생은 "다 본 동화책을 활용해 다양한 기법으로 작품을 만드는 일이 재미있었고 취지도 좋았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수업 종료 이후 수강생들은 도서관 동아리로 등록해 자발적인 모임도 할 예정이다. 생태 놀이터 강좌는 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왕배산과 주변 공원에서 직접 자연물을 만져보고 곤충도 잡아보는 활동으로, 아이들의 호응이 높았다. 숲 체험 수업을 추가로 개설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아 내년 <환경아카데미> 진행 시 고려할 계획이다. 왕배푸른숲도서관은 앞으로 직면한 환경 이슈들에 발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왕배푸른숲도서관 031-372-4435

홍사용 문화거리 시민기획 문화예술행사
<노작미로, 가을에 스며들다> 성료



화성시문화재단에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주간 진행한 시민기획 문화예술행사 <노작미로, 가을에 스며들다>가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커스, 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어린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다리 밑 어린이 연극제', 홍사용 문화거리 일대와 반석산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줍깅을 통해 나온 쓰레기를 재활용해 예술가와 함께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 내가 가진 물건을 재활용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노작미로 재활용 마켓'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만든 작품은 11월 한달간 전시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공연을 보러 가고 싶어도 아이를 두고 가기 어려웠는데 가족 단위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공연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전했다. <노작미로, 가을에 스며들다>는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주민협의체'에서 직접 기획한 문화예술행사로 홍사용 문화거리를 시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및 체험을 통해 도심 속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진행됐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행사 동안 받은 시민 설문 조사와 홍사용 문화거리 활성화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정책기획팀 031-290-4665

목동이음터도서관 음악 인문학 프로그램
 <재즈리안이 알려주는 오감만족 재즈가이드> 완료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재즈를 소개하는 음악 인문학 프로그램 <재즈리안이 알려주는 오감만족 재즈가이드>가 화성시 목동이음터 도서관에서 11월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재즈를 접할 때 흔히 마주하게 되는 물음에 답하는 시간이었다. 복잡하고 난해한 재즈를 오감으로 느끼는 방법은 물론, 미국사와 연계한 100년의 재즈사를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재즈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강연자인 전진홍 작가는 저서 <은몸으로 느끼는 오감재즈>, <재즈스타일> 외 다양한 저술활동 및 서울재즈원더랜드 페스티벌 예술총감독, 인문학을 소재로 한 유튜브 'JZY STUDIO'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강좌는 제1강 '구수한 뉴올리언스 재즈와 달콤한 스윙 재즈', 제2강 '핫 뜨거 뜨거, 핫 매운 비밥', 제3강 '냉정과 열정사이 쿨재즈와 하드밥', 제4강 '낭만의 보사노바와 섹시한 퓨전재즈'로 진행됐다. 목동이음터도서관은 낮에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음악 관련 야간 인문학 강좌를 무료로 운영해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음악 관련 인문학에 피소드를 들려줌으로써 힐링 및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음악 특화 도서관인 목동이음터도서관에서는 내년에도 다양한 주제의 음악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목동이음터도서관 031-378-6773

건강한 생활을 위한
 동탄복합문화센터 스포츠 특강 성료



화성시문화재단 스포츠 특강 <듀엣 필라테스>가 지난 10월 15일 동탄복합문화센터 헬스장 GX실에서 부부, 친구, 모녀 등 다양한 커플들의 참여와 함께 진행됐다. 정확한 호흡으로 주로 근육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구성된 필라테스는 둘이 함께 동작하면 근육 이완과 자세 교정 효과가 배가 된다. 또 함께 운동하는 데서 오는 파트너 간의 친밀한 교감을 통해 유대감도 증진된다. 실제로 참여자들 모두 "몸과 마음을 채우는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재단은 올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 및 시민 건강의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스포츠 특강 6가지를 마련했다. 지난 7월 2차에 걸친 <바른자세 척추운동>, 9월 진행된 아웃도어 특강 <BODY FUNCTIONAL>에 이어 네 번째 특강으로 진행된 <듀엣 필라테스>는 함께 한다는 점에서 더 의미 있는 특강이었다. 11월의 <스포츠 마사지>와 <스포츠 테이핑>까지 총 6회에 걸친 스포츠 특강을 통해 약 150명의 화성시민이 참가해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생활로 감소한 신체활동 습관을 고치고 운동으로 활력을 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 재단은 내년에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스포츠 특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시설체육운영팀 031-8015-8171~2/8174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1. 어디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우연입니다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만족스럽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생활시장화인 아트마켓도 기대되고
 아트마켓으로 인해 화성시 문화재단은
 4. 다음 호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있다면 적어주세요. **한글로**
 미술, 가보, 공예, 책, 생선고등
 애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관련 컴퓨터 관련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대인 사도** **한글로** **오** **나** **인** **개** **공** **공** **공**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한글**

<생활시장화인 아트마켓>에 가보셨는지, 지난 호 소개해 드린 장소들을 경험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의견 주신 대로 내년도부터 더 폭넓은 문화를 다루어보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더 좋은 콘텐츠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양배 푸른 숲 도서관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 화성 용·권에서 호를 생략하다.
 - 꼬마 장래의 만들기
 4. 다음 호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은 있다면 적어주세요.
 눈이 좋겠 **빙지술**에서 **맛있는 빵**을 더
많이 소개해주세요.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화분에 대한 좋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꼬마잠자리에 이어 이번 겨울호에서는 연말에 어울리는 귀여운 대륙사슴 만들기 준비해
 보았어요! 앞으로도 맛있는 빵집뿐만 아니라 가볼 만한 곳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화분>과 함께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 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8015-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만세길방문자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제부도 아트파크

도서관

남양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송산도서관
송림이음터도서관
정남도서관
진안도서관
태안도서관

작은 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도서관
노을빛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팔탄작은도서관
양감작은도서관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노작홍사용문학관
로알앤컴퍼니 아울렛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소다미술관
엄미술관

카페

다락
다원
달팽이그림책카페
손커피연구소
차마시는들
카페오카페

호텔

라비돌리조트
푸르미르호텔

기타

독립서점 모모책방
갤러리문화아지트
신자연주의공방
공방 7보다
동탄제로웨이스트샵 AII바른상점
서울건치과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배송을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편집부로 문의 바랍니다.



화성시문화재단 《화분》 독자 만족도 설문조사

올 한 해도 《화분》에 독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독자와 함께하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하고 참신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설문조사에 응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조사 문항에 응답

- 설문조사 URL: <https://naver.me/5SawGCSm>

설문기간 2022.12.1. ~ 2023.1.10.

설문내용 콘텐츠 내용, 디자인 등에 대한 만족도 조사

당첨발표 2023.1.15. 선물 당첨자 개별 연락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해드릴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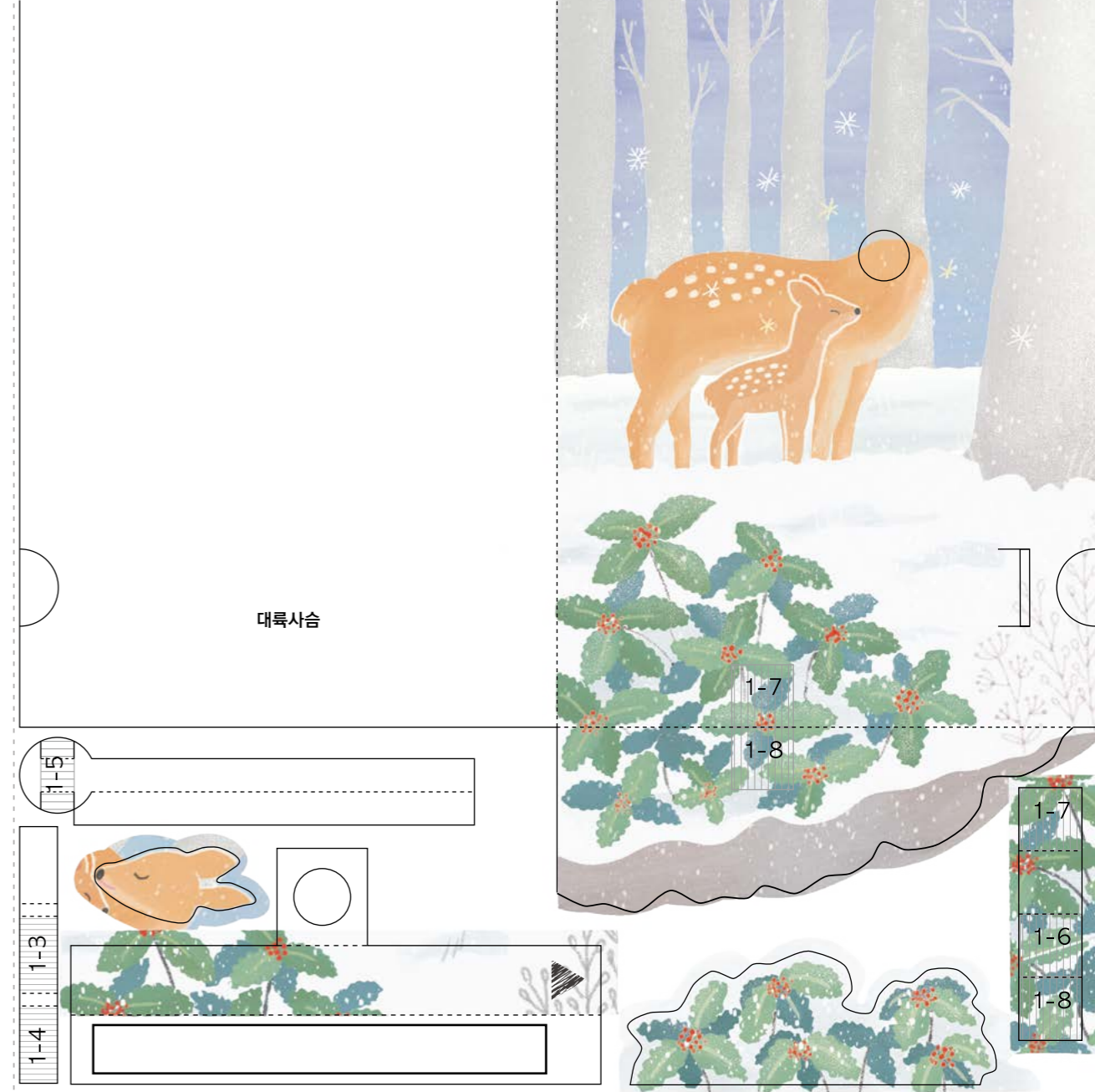
설문 제출 시 정확한 연락처 및 주소를 기재하셨는지 확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밝아오는 새해,
 늘 기쁨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가위로 오려주세요
 접어주세요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대륙사슴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 □ □ □

우편요금
 수취인부담
 발송유효기간
 2022.4.22~2024.4.21
 화성동탄우체국
 제40056호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화분>담당자

1-10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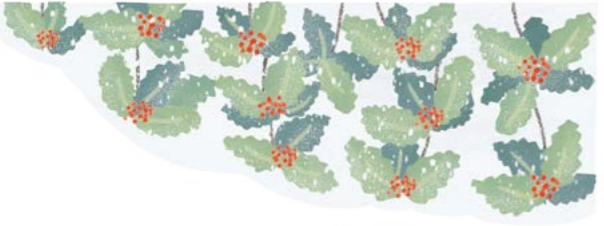
1-9

1-9

1-3

1-11

1-11



1-2

1-2

1-5

1-4

1-1

1-1

1-6

정혜경(Kepri)49 | 권나래 | 문고

인스타그램에 #매거진화분과 함께 리뷰를 남겨주세요!



화분 Vol.57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예술 교양지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업서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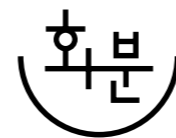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5.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VOL.57 | WAY + MOVE
2022 WINTER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김종대
편집국장	김미라
편집팀장	이혜진
기획·편집	차영은
디자인·인쇄	디자인봄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전화	031-8015-8112
팩스	031-8015-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지인 그라미트지를 사용합니다.